

창원지역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

A Study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Public Libraries and Its Changing Sociological Role in Changwon City

양 재 한 (Jae-Han Y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1. 6·29선언 이전의 공공도서관 |
| 1.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 2. 민간도서관의 등장과 지방화 시대의 공공도서관 |
| 2. 연구방법과 자료 | 3. 주민참여 형태의 공공도서관 |
| II. 창원지역 도시화과정과 특성 | IV. 요약 및 결론 |
| III.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 | 참고문헌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창원지역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의 사회사와 그 역할의 변화과정을 해석하는 데 있다.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공공도서관이 접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창원지역 공공도서관의 역할변화 과정도 한국사회와 지역사회의 변화과정과 관련이 있다. 이에 창원이 시로 승격된 1980년 이후를 6·29선언 이전의 공공도서관, 민간도서관의 등장과 지방화 시대의 공공도서관, 주민참여 형태의 마을도서관 시기로 나누어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역할변화 과정을 해석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interpret the processes of establishing the public libraries in Changwon City and its changing sociological roles. The roles of the public libraries are changing according to the aspects of the communities. Thus the roles of the libraries in Changwon have also changed with the various changes in Korean society. The periods are divided into three : before the declaration June 29 (1980 - 1987); the appearances of civil libraries and local community libraries(1988-1995); the *maeul* (which means small community) libraries that the citizens have established and participated. By the three periods this paper interprets the processes of establishing the libraries and their changing in Changwon City.

* 이 연구는 양재한, 「창원지역 공공도서관 성립과정에 얽힌 사람들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제53권 제4호(1998 겨울), 55-93쪽과 짝을 이루는 연구이다.

** 창원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부교수

1.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문명화된 지구상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공공도서관이 없는 곳은 없을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예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공공도서관이 속한 지역사회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그 봉사의 내용, 범위, 수준, 방법 등이 낙후하고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공공도서관을 에워싸고 있는 사회환경과의 관계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이라는 실행기관이 지역사회에 나타난 것은 우리의 사회제도에 의해 지역사회가 공공도서관에 부여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제도는 한 사회의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의 발전양상에 따라 생성·발전한다. 또한 사회제도를 지탱하기 위한 실행기관이 나타나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가족제도, 종교제도, 법제도 등의 실행기관으로 가정, 교회, 재판소가 있어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식이라는 사회제도를 실행하는 기관으로 학교, 대학, 도서관이 있어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다.²⁾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성립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나타난 실행기관이기 보다는 개화기에는 애국계몽 운동의 차원에서 출발하였으며, 일제시대에는 사회교화시설로, 해방이후에는 정책담당자나 행정담당자들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행정제도의 하나로 존립해 왔었다. 따라서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에 의해 필연적으로 생긴 실행기관이 아니었으므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탕으로 한 역할이 왜곡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하여 공공도서관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환경은 이미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가고 있어 공공도서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사회적 장치가 나타나 그 기능을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지난날에 하던 방식대로 계속 추구한다면 결국 침체의 늪을 헤어나가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진부한 태도로는 공공도서관을 아끼고 옹호하고 그 발전을 성원하던 독자들마저 잃게 될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살아 남으려면 그 목적을 변화된 환경에 비추어 재평가하여 조정하고 내부적으로 봉사종목의 우선 순위를 시류에 맞게 수정하여

1) 최성진, 『도서관학통론』 (증보판), 아세아문화사, 1988, 173쪽.

2) 제이 에이치 세라,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 (윤영 옮김), 구미무역, 1984, 47-56쪽.

야 할 것이다. 수정된 봉사의 우선 순위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다를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그것이 산업분야에 대한 봉사가 될 것이고, 어떤 곳에서는 학력이 낮은 계층을 위한 봉사가 될 것이고, 또 어떤 곳에서는 미술관, 박물관 또는 기타 문화기관과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봉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재평가와 재조정이 늦지 않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자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실행기관이 나타나서 공공도서관을 밀어낼지도 모를 일이다.³⁾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데는 공공도서관을 에워싸고 있던 우리사회의 과거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주변환경에 따라 역할이 변화하는 사회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해방에서 한국전쟁이 끝나는 1953년까지는 민족국가의 성격을 둘러싼 전면적인 계급투쟁의 시기이며, 한국전쟁이후는 사회전반이 극우적으로 재편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물리적 힘에 의존하여 유지되던 지배체제의 일시적 위안상태가 4·19 이후 일시적으로 조성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이 시기는 한국 자본주의의 관료적 성격이 심화되고 권위주의 민간정권을 매개로 한 신식민지적 정권의 재생산기로 규정된다.⁴⁾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사회사적으로 5·16혁명이후 등장한 한국사회의 새로운 지배체제가 군부 파시즘을 매개로 하여 재생산되는 친미·반공·분단적 성격을 갖는 신식민지체제로 규정된다. 군사혁명의 민족적 성격과 국가주의적 경제개발에 대한 환상이 공존하는 시기였으나, 1970년대는 이른바 유신시대로 물리적 강압이 전면화·일상화된 시기로 집약된다.⁵⁾

당시 사회 분위기는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쁨통을 안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분위기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통제된 언론에 침묵하였으며, 언론을 불신한 주민들은 언론에 담겨진 이면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던 시기였다. 이러한 격동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반공의식과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로 대표되는 분단 이데올로기가 자리를 틀게되었으며⁶⁾ 민중의 알 권리가 철저히 봉쇄되면서 읽을 권리를 박탈당한 주민들은 공공도서관을 공부방으로 주로 활용하였다. 유신정부의 붕괴로 새로이 나타난 5공화국 정부도 일부 정치군인의 12·12반란과 5·18광주학살로 집권한 결과 민중들과 갈등·긴장이 고조되게 된다. 이에 민중의 정치적 무관심화를 획책하며 소위 3S(sports, sex, screen)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반면 출판운동은 극심한 탄압을 받게되고, 언론기관 통폐합 후 언론기관에 대해 보도지침 시행, 도서관에는 금서목록시행 등으로 공공도서관은 건물만 가진 알맹이 없는 사회적 장치로 존재하였다.⁷⁾

3) 최성진, 앞의 책, 19쪽.

4) 조희연,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한울, 1993, 92-93쪽.

5) 위의 책, 95-118쪽.

6) 위의 책, 33쪽.

7) 강대훈, 『한국도서관운동론』, 광주, 1990, 32쪽.

과거 우리사회의 이러한 모습은 주민의 삶의 질을 담보로 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왜곡시켰으며, 이름만의 기관으로 전락케 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 사상은 시장의 논리만을 강조하고 있어 공공재적 성격으로서의 공공도서관 본래의 서비스 기능이 존립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을 과시하는 일부의 무리들은 종이매체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도서관은 디지털 도서관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실정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현재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개척기적 상황으로 우리의 현 단계에 적합한 이론이 개발되어야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다. 현 단계에 적합한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건물만 가진 알맹이 없는 사회적 장치로 존재할 당시의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그 이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미래사회에도 공공도서관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유익한 사회적 장치로 작용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된다.

첫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과연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인가.

둘째,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은 도서관을 에워싸고 있는 사회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면 공공도서관을 에워싸고 있는 지역사회는 어떻게 변화하였고, 이 변화에 따라 실제 도서관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가.

2. 연구방법과 자료

우리나라에는 지역간의 사회적 조건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근대 한국사회의 사회변화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국가가 주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선택된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연구행태는 지역연구보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익숙해져 있다. 이는 1960년에서 1990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 유지해온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로 인해 특정지역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문헌정보학계에도 나타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역할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은 그 공공도서관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지역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

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은 한국사회 전체를 들여다보서는 피상적인 접근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에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성립되었으며, 그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나는 유신정부의 중화학공업 정책에 따라 1974년부터 기계공업공단의 배후도시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창원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이 우리사회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성립되었고, 그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고자 한다.

창원은 1980년 시로 승격된다. 이어 1983년에 교육단지에 경남교육청에서 창원도서관을 세우게 된다. 창원도서관은 창원이 시로 승격된 1980년부터 1983, 84년 당시의 사회사정을 바탕으로 세워져 지역사회에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1987년 6·29선언 이후 마산·창원지역의 근로자, 참교육운동 관련교사, 학생들의 진보적인 사상과 지식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왜곡된 사상과 지식의 유통구조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 마산의 책사랑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이와 함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화 시대가 도래한다. 이어 창원시립도서관이 1993년 주민들의 정주의식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창원시에서 세우게 된다. 창원시립도서관은 지방화 시대가 도래할 당시인 1991년부터 1993, 94년 당시의 사회사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1995년 기초단체장이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면서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마을도서관이 동네마다 세워져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창원지역에 세워진 공공도서관은 그 당시의 사회사정을 바탕으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므로 공공도서관이 세워질 당시의 사회사정과 이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창원지역에서의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창원지역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변화 과정은 1980년 4월 창원시 승격에서부터 유신정부 말기와 전두환 정권의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6·29선언 전까지를 첫 번째 단계, 노태우 정권의 6·29선언부터 1991년 지방의회구성과 1995년 기초단체장 선거전까지를 두 번째 단계, 그리고 1995년 기초단체장 선거부터 현재까지를 세 번째 단계로 나누어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을 해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당시의 각종 기록물들과 도서관을 이용한 이용자 개개인의 이용경험에 관한 생활사(life history)⁸⁾를 활용하고자 한다.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은 우리사회의 사회적·역사적 변화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의 모습으로 나아오기까지의 사회사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공공도서관의 역

8) 생활사 연구의 방법에 대하여는 有末 賢, 「생활사 연구의 시각」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1994, 222-243쪽을 참조하면 된다. 생활사 연구를 적용한 대표적인 글로는 김희재, 「미군정기 민중의 꿈과 좌절: 인민위원회운동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부산대학교), 1997. 오스카 루이스, 『산체스네 아이들 I·II·III』 (박현수 옮김), 지식공작소, 1997 등이 있다.

할변화 과정은 당시의 공공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한 경험을 지닌 이용자들의 생활사 해석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생활사 방법에는 본인 스스로가 기술하는 자서전과 구술된 내용을 듣는 사람이 편집하여 기술하는 구술생활사로 나눌 수 있다.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은 대개가 사회의 지명도나 명망이 따라야 하지만 구술생활사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보통 사람들의 개인사라고 할 수 있다. 즉 구술생활사는 역사에서 제외되기 쉬운 민중의 과거 삶을 개개인의 기억 회상을 통하여 공통의 기억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기술은 소수 지배집단을 중심으로 그들이 만든 세상을 중심으로 기술해 왔으며, 민중(주민)들은 항상 역사적 사건에서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기술되어 왔던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에 대한 기술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도서관을 어떠한 장치로 활용해 왔는지에 대한 경험을 기술하면 이용자가 주체가 되는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도서관을 이용한 개개 이용자들의 이용경험에 대한 구술생활사 기술을 통해 과거 이용경험에 대한 회상을 찾아 낼 수 있으며, 그 중에서 공통의 기억을 추출하면 집단적 기억에 의한 당시의 공공도서관 역할을 알 수 있다. 이를 시계열에 따라 조사하면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역할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용자들의 구술에 의한 도서관과 관련된 생활사 조사는 창원도서관, 마산의 책사랑과 창원시립도서관, 마을도서관이 세워질 당시의 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한 이용자 각 3인씩, 모두 12명을 선정하여⁹⁾ 그들의 경험을 녹취하여 기술하였다. 이용자들은 당시의 시대상황을 바탕으로 한 이용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사회와 창원지역의 사회사정에 대하여는 각종 문헌과 신문기사에 비친 사회상을 참고로 하였다. 면담에 응한 이용자들의 이용경험은 이용자 본인의 주관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창원도서관, 마산의 책사랑과 창원시립도서관, 마을도서관이 세워질 당시 도서관 현장에서 일선 직원으로 근무했던 직원들의 경험도 녹취하여 보완하였으며, 각종 통계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하여 최대한 객관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다.

9) 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한 이용자 12인의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창원도서관 이용자 3인의 선정은 사서직 관장인 박애경이 추천한 5인 중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3인을 선정하여 인터뷰하였다. 책사랑 이용자는 책사랑 도서관장으로 있던 전세중을 통해 당시 이용자 그룹 중에서 학생운동, 노동운동, 참교육운동에 참여한 3인을 선정하여 인터뷰하였으며, 창원시립도서관 이용자는 사서직 계장인 이경희가 추천한 2인과 평사자들이 추천한 1인을 인터뷰하였으며, 마을도서관 이용자는 21개 마을도서관 중 비교적 활성화되어 가는 마을도서관 2개관을 선정하여, 이곳에 근무하는 담당 사서들이 일상적 이용자라고 추천한 3인을 인터뷰하였다.

Ⅱ. 창원지역 도시화 과정과 특성

이은상 작사, 김동진 작곡의 ‘창원시민의 노래’에 창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삼한의 오랜 역사 전통의 터전
 겨레의 얼과 숨결 배어든 곳에
 세기의 앞을 가는 새 도시 건설
 눈부신 조국번영 여기 와 보라
 정병산 정기를 이어받아
 자연과 인공이 조화된 고장
 부강한 공업입국 우리 손으로
 창원의 새 역사를 창조하리라

창원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사이다. 현재의 창원시는 한반도 동 남단 경상남도의 중부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기계공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성장해 왔으며, 경상남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¹⁰⁾ 창원시와 같은 위도에 있는 도시는 부산, 김해, 마산, 진주, 광주시이며, 같은 경도 상에 있는 도시는 진해, 대구, 영주, 양양 등이다. 창원시의 지형은 서북쪽의 천주산, 동쪽의 정병산, 남동쪽의 불모산, 남쪽의 장복산과 팔룡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이며, 해안선은 마산만과 접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의 영향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1권부터 제32권에 경상도 각 지역의 풍속과 의식을 기술하면서 창원인에 대하여는 ‘창원(마산)은 교통이 불편하여 교류가 한정되었던 관계로 지역민의 성격, 민속 등이 사회·문화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의 습속이 거칠며 숭사하기를 좋아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창원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974년에 발굴된 성산 패총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선사시대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기계공업공단의 배후도시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제4공화국인 유신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1970년대 이후부터이다. 창원이 오늘날과 같은 도시로 성장하게 된 배후에는 5·16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관련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에 지나지 않던 상황에서 오로지 물질적인, 그것도 양적인 성장을 추구한 근대화에 모

10) 창원지역 전반에 대한 연구는 창원시사편찬위원회, 『창원시사』, 1997.

하종근 등저, 『20세기를 향한 창원시의 좌표와 발전과제』, 창원상공회의소, 1995. 등을 참조하라.

든 국력을 집결시켰다.

1960년대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상원조가 차관으로 전환되어 우리 정부는 외자도입에 의한 경공업 중심의 수출육성 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에 기존의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공업단지가 형성되었다.¹¹⁾ 이어 1970년대 유신정부는 공업생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자본축적 과정의 중심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중화학 공업위주의 성장을 위하여 입지조건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동남해안에 공업기지를 조성함에 따라 동남해안을 중심으로 신흥 공업도시들이 나타난다. 동남해안을 중심으로 나타난 새로운 공업기지로써 제2석유화학기지는 여천·광양에, 기계공업기지는 창원에, 조선공업기지는 거제에, 전자공업기지는 구미에, 비철금속기지는 온산에 건설하게 된다.¹²⁾ 이때 창원은 정부의 대규모 기계공업기지¹³⁾ 조성의 일환으로 인위적으로 생성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공업화정책의 배경에는 1960년대 이래 미국·일본을 절대적 모델로 하여 가능한 빠른 속도로 이들 나라를 따라 잡아야 한다는 근대화논리가 저변에 깔려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100년 동안에 서구의 근대 300년의 변화를 압축해 따라갔다면 우리나라는 60년대 이래 30년 동안에 서구의 300년을 압축해 따라갔다.¹⁴⁾ 이러한 성장 제일주의 정책은 창원의 도시형성 과정에도 나타나, 유신정부는 국가 공단건설과 배후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당시 주로 농사를 짓던 원주민들 소유의 땅을 유신정부는 원주민들의 저항을 무릅쓰고 최저 305원, 최고 19,000원에 농지, 집터 등의 사유재산을 국유지로 강제 수용, 매수하여 다시 사유 재산으로 불하하였다. 당시 창원공단에 공단부지를 분양 받는 것 자체가 기업활동에 엄청난 특혜였다고 한다.¹⁵⁾ 이러한 무서운 속도로 근대화를 향한 서구 흉내내기의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사회는 독재, 편법주의, 조급성, 물질적 쾌락주의가 만연하게 되었고 당장 '돈으로' 또는 '수치로' 표현되거나 산출되지 않는 그 어떤 사고나 행동도 무시되거나 등한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¹⁶⁾ 그러한 사회 문화적 바탕 위에 창원이란 인공도시가 나타난다.

11) 최종현, 「도시화와 중주성의 문제」 『오늘의 한국사회』 임희섭·박길성 공편, 나남, 1993, 282-283쪽.

12) 昌原機械工業公團, 『昌原基地五年史』, 1979, 53쪽.

13) 유신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은 과거 공장군 위주의 공업단지 개념보다는 상호의존성과 관련성이 클 뿐 아니라 용수 전력등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일부 중화학공업은 심한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이므로 정부는 이들 산업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입지에 유치 개발하고, 공업단지와 인접한 곳에 새로운 산업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공업단지' 개념보다는 훨씬 넓고 복합적인 '공업기지'의 개념으로 계획이 수립된다. (위의 책, 52-53쪽)

14) 김진경, 『삼십년에 삼백년을 산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일 수 있을까』, 당대, 1996, 82쪽.

15) 하종근 외, 앞의 책, 45쪽.

16) 정영태, 「경제개발과 민주주의의 대립(1960-1987): 개발연대 지식인의 역할과 반성」, 『한국지성사의 회고와 성찰: 근 현대사 100년을 중심으로』, 교수신문창간 7주년 기념학술세미나(1999. 6. 4), 7쪽.

현재 창원시의 인구는 50만을 넘어서고 있다. 창원시가 50만을 넘어서기까지 발전과정을 기계공업기지 조성시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4년 4월 1일자 건설부고시 제92호로 마산시의 두대동, 덕정동, 삼동동, 반송동, 연덕동, 용지동, 목동, 토월동, 외동, 정동, 가음정동, 남산동 등 12개 동 전역과 서상동 외 27개 동 일부지역이 대규모 기계공업기지 건설을 위하여 산업기지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1976년 9월 1일자 경상남도 조례 제853호로 경상남도 창원지구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1980년 4월 1일자 법률 제3188호로 창원지구출장소 관할전역과 마산시 의창동을 편입하여 18개 행정동으로 창원시가 출발하게 된다.

1983년 7월에는 경상남도청, 동년 9월에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1992년 5월에는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이, 1993년 11월에는 한국은행 창원지점이 창원으로 옮겨옴에 따라 공단 배후도시로 출발한 창원시가 행정 중추기능을 확충하면서 지역중심도시로 급성장하게 된다.

이에 ‘창원도시기본계획(1984)’, ‘창원도시계획재정비(1985)’, ‘창원도시기본계획(1993)’을 연이어 수립하여 공단배후도시로 출발한 창원시가 자족적 완결도시 건설을 목표로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 또한 창원은 주거상업지와 공업지의 비율이 1:1.07로 공업지에 비해 주거지가 협소하여 공단배후도시의 역할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1995년 구창원군의 동면, 북면, 대산면과의 통합으로 종래의 면적의 1.3배가 늘어난 291.62km²로 용지난 해결은 물론 경남지역의 산업·경제, 정치·행정 및 교육·문화의 두뇌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97년 7월부터는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기존의 시 지역 24개 동을 12개 대동으로 통합하여 현재 15개 읍·면·동으로 경남의 행정·산업·교육·문화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창원도시기본계획(1997)’을 다시 수립하여 목표년도인 2016년도에는 계획인구 795,000명을 수용하는 도농통합도시로서 주거, 생산, 문화 등 선진화된 복지도시를 추구하고 있다.¹⁷⁾

다음은 창원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97년 12월말 현재 창원시 인구는 508,148명이다. 1976년 창원지구출장소가 설치될 당시 43,815명으로 출발하여, 1980년 시로 승격될 당시 인구는 11만 여명이 넘어서 현재는 인구 50여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창원 이 시로 승격된 후 지금까지 인구변동 추이는 (표1)과 같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18년 동안 창원시의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9.99%로 높은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1993년을 기점으로 인구증가율이 2.5%를 보이고 있어 도시가 점차 안정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¹⁸⁾ 이 기간 동안 경상남도의 인구증가율은 1.1%,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증가율은 1.0%와 비교해보면 약 10배정도의 인구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 昌原市, 『市政白書』, 1998, 445-462쪽.

18) 1995년 인구증가율이 14.38%로 나타남은 구창원군의 북면, 대산면, 동면이 창원시에 통합되면서 증가된 인구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창원은 공단배후도시로서의 기능과 경남의 행정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유입인구가 급증하였다. 즉 사회적 요인에 의한 증가가 인구증가를 주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연적 증가가 사회적 증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국의 인구증가율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창원의 자연증가율은 모두 2%를 넘어 전국의 증가율 0.9%대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창원이 자연 인구증가율도 높은 주요한 이유는 창원시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조에서 25세에서 39세까지의 인구구성 41.8%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출산력이 높은 젊은 세대의 구성비가 높은데서 기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¹⁹⁾

1997년 말 현재 창원시의 중분류 산업별 총 사업체 종사자 수와 이에 따른 비율은 다음과 같다.²⁰⁾ 창원시에 사업체 종사자 총수는 188,181명(100.0%)이다. 이 중에서 농업, 수렵업, 임업 88명(0.0%), 어업 15명, 광업 64명(0.0%), 제조업 92,824명(49.3%), 전기, 가스, 수도사업 425명(0.2%), 건설업 12,871명(6.8%),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23,519명(12.5%), 숙박, 음식점업 13,295명(7.1%), 운수, 창고, 통신업 4,210명(2.2%), 금융, 보험업 7,950명(4.2%),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9,629명(5.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 6,087명(3.2%), 교육 서비스업 8,032명(4.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079명(1.6%), 기타 공공 및 사회, 개인 서비스업 6,093명(3.2%)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에서 알 수 있듯이 창원시에는 사업체 기준으로 19만여 명중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49.3%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공공행정, 교육 기타 사회,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가 모두 합하여 약 13%를 점하고 있어 공단 배후도시에서 도 단위 행정중추도시로의 이행과정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1〉 창원시 인구구성과 인구추이

(단위 : 명, %)

연도	구분	인 구			인구증가율	가구수	가구당인구	인구밀도
		계	남	여				
1980		111,691	59,739	51,952	9.89	26,148	4.3	905
1981		128,095	68,754	59,341	14.69	29,577	4.2	905
1982		134,737	72,023	62,714	5.19	31,288	4.3	1,091
1983		143,429	76,686	66,743	6.65	34,313	4.2	1,163
1984		160,402	84,755	75,647	11.83	39,009	4.1	1,295
1985		173,283	91,182	82,101	8.17	43,698	4.0	1,400
1986		188,961	99,683	89,278	8.91	46,568	4.1	1,528

19)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하라. 양재한, 『창원지역 공공 및 마을도서관 이용자 확보방안』

《圖書館學論集》 제23집(1995. 겨울호), 217-219쪽.

20) 慶尙南道, 『事業體基礎統計調查報告書』, 1998, 214-511쪽.

구분 연도	인 구			인구증가율	가구수	가구당인구	인구밀도
	계	남	여				
1987	214,829	112,905	101,924	13.69	54,112	4.0	1,727
1988	253,321	133,781	119,540	17.92	65,087	3.9	2,036
1989	303,108	160,877	142,231	19.65	78,642	3.9	2,437
1990	323,094	168,764	154,330	6.61	88,189	3.7	2,597
1991	367,054	190,839	176,215	10.74	108,241	3.3	2,951
1992	384,816	197,723	187,093	7.54	114,988	3.3	3,093
1993	400,046	205,124	194,222	3.79	119,035	3.3	3,211
1994	421,130	215,154	205,394	5.23	124,985	3.4	3,381
1995	481,694	248,278	233,418	14.38	147,765	3.3	1,639
1996	497,089	254,813	242,276	3.20	150,934	3.3	1,698
1997	508,148	261,004	247,144	2.22	156,786	3.2	1,735

(자료 : 창원시, 『제19회 창원통계연보』, 1998.)

창원시는 유신정부의 성장일변도의 근대화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잘 계획된 도로망이나 공간배치와는 달리 주민의 삶의 질의 문제는 삭막한 신생도시에 불과하다. 인구가 50만을 넘어서고 도시가 안정 성장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부터는 내부적 요인에 의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내실 있는 발전이 강구되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창원은 외지 유입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신생도시이므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력이 미약한 도시이다. 그에 비해 시민 개개인의 역량은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고학력의 젊은 인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생산직 노동자조차도 기계공단의 특성상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숙련 기능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다수가 공업고등학교나 각종의 직업기술학교 출신으로 특정한 기술자격을 갖춘 노동자들이다. 즉 개인주의와 가족단위의 생활양식이 시민들의 삶의 기본단위를 이루는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생활에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도시이다.²¹⁾

그러나 나름의 장점도 지니고 있다. 대부분 전통적 중소규모의 도시의 경우 소수의 '유지'들에 의해 장악되어 주민들 개개인의 의견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창원의 경우는 백지의 상태에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모범적인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도 많은 도시이다. 따라서 과거 창원의 발전은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양적팽창에 치중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주민의 삶의 질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 고양에 도시성장의 관건이다. 이러한 때에 공공도서관은 주민의 삶의 질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사회적 장치로 활용이 가능하며, 실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1) 하종근 외, 앞의 책, 191-194쪽.

Ⅲ.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은 당시 도서관을 에워싸고 있던 사회사정과 도서관을 이용한 이용자들의 경험을 시계열에 따라 분석하면 알 수 있다. 도서관 이용자가 개인의 경험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구술을 통해 기억으로부터 끄집어내어 기록하면 이용자들의 경험이 역사로 전환된다. 이 역사를 비교평가 하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알 수 있다. 이에 1980년 창원이 시로 승격될 당시부터 1987년 6·29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통제위주의 암울한 사회사정과 이를 바탕으로 운영되던 창원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경험,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의 6·29선언이후 진보적인 사상과 지식의 유통장소로 나타난 민간도서관 책사랑과 지방화 시대의 도래로 지방의회가 1991년 구성된 후 지역주민에게 정주의식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세워진 창원시립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경험, 그리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면서 주민참여에 의해 마을마다 세워진 마을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경험과 사회사정을 시계열에 따라 분석하면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6·29선언 이전의 공공도서관

1) 성립과정의 사회사

창원의 공공도서관은 유신정부의 창원기계공단의 배후도시 건설계획인 '창원도시기본계획'에서 그 출발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계획서에는 1975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1977년부터 1986년까지 10년 동안의 공단 배후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서는 계획기간동안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공기관 건설계획을 살펴보면, 제1단계는 1977-79년까지로 시청, 전화국,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한전영업소, 교육청, 시민회관, 전신전화국 1개소, 금융기관 3개소의 공공기관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제2단계인 1980-82년까지는 상위 행정청 1개소, 금융기관 4개소, 세무서 1개소, 세관 1개소, 전신전화국 1개소의 공공기관을 두도록 계획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제3단계인 1983-86년까지 공공기관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다.²²⁾

1980년 4월 1일 창원이 시로 승격될 당시 우리나라는 극도의 사회혼란기를 거치고 있었다.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과 유신체제의 붕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

22) 昌原機械工業公園, 앞의 책, 108-110쪽.

동, 1981년 전두환 정권의 탄생 등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신 군부의 억압적인 통치가 지속될 즈음 창원은 시로 승격되어 1982년 11월에는 경남신문이, 1983년 1월에는 창원대학교(마산대학이 창원으로 옮겨와 1985년에 교명변경)가, 1983년 7월에는 경상남도청이, 동년 9월에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1987년 6월에는 KBS 창원방송총국 등 도 단위 기관이 창원으로 이전해옴에 따라 타 지역의 인구가 창원으로 계속 유입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공단배후도시에서도 단위 행정중추도시로 기능의 변모를 가져왔다.

이러한 도시화 과정에 공공도서관의 모습은 1983년 인구 14만 여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도시가 성장되면서 1983년 11월 16일 '경남도립창원도서관'²³⁾이라는 이름으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교육단지 내에 세우게 된다. 이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세워지기 보다는 국가의 계획도시 건설과정에 공공기관 설립계획의 하나로 주민들의 거주지와는 거리가 먼 교육단지 내에 도서관이 세워지게 된다.

창원도서관 건물은 처음부터 창원도서관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당시 창원기계공단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세운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기계공고 도서관으로 지었습니다. 그것이 기계공고에서 도서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창원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²⁴⁾

창원도서관은 신도시에 많은 공공기관이 세워지는 과정에 주민들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행정제도의 하나로 세워지는데, 이 당시 창원은 직장을 따라 새로운 터전에 모여든 사람들이 나름의 삶의 틀을 만드는데 분주한 시기였다. 창원공단이 세워질 당시부터 1987년까지 교육기관은 유치원이 시로 승격될 당시 하나도 없었지만 공립유치원 26개, 사립유치원 14개가 세워지고, 초등학교의 경우 5개교에서 11개교로, 중학교의 경우 3개교에서 7개교로, 고등학교의 경우 2개교에서 10개교로, 전문대학 1개교, 기능대학 1개교, 일반대학 1개교가 세워진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학교가 세워지면서 문인들의 모임도 결성된다. 1980년 일선교사·교육자들이 중심이 되어 '창원문예교육회'가 발족되고 이어 1987년에 창원문인협회가 조직된다. 창원음악협회가 1986년, 창원국악협회가 1986년, 극단 '창원'이 1987년, 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시지부가 1983년, 창원시 체육회가 1980년에 세워지면서²⁵⁾ 인공도시에 사람이 살아가는 흔적들을 만들어 나간다.

1986년부터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힘입어 3저 현상이 나타나 우리나라 경제가 호황기를

23) 현재의 명칭은 창원도서관으로 부르고 있다.

24) 윤○○의 증언, 1999. 7. 2, 16:00 - 17:00, 창원도서관 지원협력계(윤○○은 창원도서관이 개관하기 전인 1983년 5월부터 현재까지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창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개관 당시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증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25) 昌原市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369-667쪽.

맞게된다. 미 달러화의 평가절하, 국제원유가격의 하락과 국제금리의 하락은 수출주도형 산업이 호황을 맞아 1986년은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어 무역흑자의 원년으로 기록된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내경기는 우리나라 중공업의 심장부인 창원의 공장 가동률을 점차 높였으며 (표1)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급격한 인구증가를 가져온 시기이기도 하다.²⁶⁾

2) 역할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은 공공도서관이 터전을 잡고있는 시대나 지역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6·29선언 이전 창원에는 1983년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세운 창원도서관이 유일한 주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존재하였다. 창원도서관이 개관될 당시는 전두환 정권의 강권통치가 계속된 시절로 이때 도서관의 역할이 어떠하였는지를 당시 이용자들의 이용경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983년 창원도서관이 세워질 때부터 1987년 6·29 선언 이전까지 창원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한 이용자 3인²⁷⁾의 도서관과 관련된 생활사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 3인의 인터뷰는 주관적인 경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창기 창원도서관 개관 시부터 현재까지 기능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윤○○의 증언과 당시 언론에 비친 창원도서관의 모습, 창원도서관에서 간행하는 유일한 정기간행물인 '해돋이'²⁸⁾ 등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공단배후도시로 탄생한 인공도시의 삭막한 분위기에 도서관이 세워짐은 많은 학생들과 관심 있는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게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역할에 대하여 비판도 많이 받게된다.²⁹⁾ 개관 당시의 신문기사 한 토막을 들여다보자.

경남독립창원도서관의 개관식이 16일 상오 10시 창원시 중앙동 106의 3 창원도서관에서 이수동 교육감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 내빈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 창원도서관은 총 열람석 6백6석으로 이중 남자열람석 1백98석, 여자열람석 1백44석, 아동열람석 1백8석, 성인열람석 48석, 참고열람석 54석, 정기간행물실 55석 등이며, 현재 장서는 아동 및 역사문고 1천5백43권을 비롯, 문학 2천38권, 언어학 5백70권, 예술 6백50권, 기술 과학 8백13권, 순수과학 4백6권, 사회과학 8백10권, 종교서적 4백권, 철학 4백90권, 기타 4백5권 등 총 8천1백25점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 창원도서관의 초대관장에 조창석씨

26) 昌源機械工業公園 『昌源基地十五年史』, 1990, 603-631쪽.

27) 창원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생활사 인터뷰를 한 3인은 다음과 같다. 안○○은 초등학교 교사이며, 이○○은 아동문학가로 창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고○○은 시인으로 창원에총지회장을 맡고 있다.

28) 《해돋이》는 창간호가 1987년 12월에 간행되었다. 이 잡지는 1986, 87년 당시의 도서관 이용자들의 독후감, 백일장, 모자독서회 등의 소식과 글들을 문집형태로 수록하고 있다.

29) 창원도서관은 태생부터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창원시는 타도시와 달리 완전한 계획도시로 주거지구, 교육지구, 상업지구, 행정지구, 공업지구로 구분되어 있다. 창원도서관은 교육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는 위치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행정사무관)가 취임하여 이날 개관을 보게 된 것이다.³⁰⁾

요즘 창원과 마산시립도서관 주변에는 밤만 되면 불량배들이 설치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시설과 환경이 좋아 마산 시내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립창원도서관의 경우 시내버스를 타는 곳까지의 지름길이 보안등 마저 없는 골목길 이어서 불량배들이 설치 등 도서관 주변이 우범지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집 부근의 버스정류장에 마중을 나오는 등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도립창원도서관은 6백18개 좌석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어 평일에는 3백4백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좌석이 모자라 3백여 명이 헛걸음을 하고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도서관을 찾는 학생 대부분이 학교수업을 끝내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못돼 1인당 100원의 입장료를 주고 문을 닫는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³¹⁾

개관 당시와 개관 6개월 후의 신문기사에서 창원도서관은 자료중심 도서관이기보다는 학생들의 공부방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면서 행정제도의 하나로 그 존립의 근거를 찾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창기 이용자들의 모습에 대한 윤○○의 증언에서 1985년 2대 관장인 신덕기 관장이 부임하고부터 공부방의 모습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가서기 시작한다.

당시 마산에는 제대로 된 도서관이 없어 창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마산 학생들도 이곳까지 공부하러 많이 왔습니다. 개관시간이 오전 7시인데 오전 6시부터 학생들이 좌석표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섰었고 직원들은 출근하면 줄 세우는 것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2층 열람실은 남·여 열람실로 구분 되어있었는데 하루에 이용자가 천명이 넘었고 낮 1시까지 줄을 서서 빈 좌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개관할 초창기에는 열람실 이용자와 소수의 자료 이용자 외에는 도서관에 별도의 프로그램 봉사는 없었습니다. 1986년 기계공고 기숙사를 도서관 별관으로 사용하면서 모자독서회도 만들고 다른 프로그램 봉사가 시작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창원은 공간 구성에 바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다른 여가시설이나 문화생활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일 형편이 못되었습니다.³²⁾

당시 신문기사와 윤○○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창기 창원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한 사람들은 열람실 이용자들에 비하여 소수였으며 신도시를 세우는데 집중하던 시절이라 공공

30) 「도립창원도서관개관」, 《경남신문》, 1983. 11. 16.

31) 「도서관주변 우범화; 보안등 조차 없어 불량배 설치」, 《부산일보》, 1984. 4. 20.

32) 윤○○ 창원도서관 기능직 직원과 인터뷰, 1999. 7. 2. 16:00 - 17:00, 창원도서관 지원협력계

도서관 이용이 모든 사람에게 일상화되기보다는 소수의 엘리트 계층에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1985년 5월 신덕기 관장이 2대 관장으로 부임한 후 창원도서관이 일부 주민들에게 열린공간으로 다가서기 시작한다. 직장을 따라 타지에서 몰려든 황량한 도시에 사람들이 이용할 문화시설이라고는 창원도서관 밖에 없었으며, 이에 타 도시에서 도서관 이용경험을 가진 주부들이나 이들의 권유에 의해 당시로서는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창원도서관을 찾게된다.

이들은 또래 집단들끼리 교제의 공간으로,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자녀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도서관을 활용하게된다. 이들의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 1986년 모자독서회가 주부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창립된다. 이때 참여한 사람들 중에 안ㅇㅇ과 이ㅇㅇ의 도서관 이용경험을 인터뷰하였다. 한편 고ㅇㅇ은 창원도서관을 문화의 구심체로 만드는 일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1979년부터 창원에서 문화운동을 하던 그는 창원에 공단문화를 만들어나가려던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간으로 창원도서관을 이용하게 된다. 창작, 음악회, 전람회 등의 기능을 촉발시킬 수 있는 다기능 문화공간으로 창원도서관을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창원도서관에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나름의 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그가 활동한 그룹을 중심으로 가향문학회, 시인학교, 창원문학아카데미 등의 모임들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간다. 이들 3인이 창원도서관을 찾게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당시 함께 도서관에 몰려다닌 엄마들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 볼까 걱정하는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책도 빌려 보고 도서관을 이용하게되었습니다.³³⁾

창원에 와서는 아이들 위주의 책을 많이 봤고 주로 책을 사서 보는 편이다가 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이 되어 가지고, 제가 조금 책을 봐야겠다는 욕구가 강해지고 아이들 책도 사서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더 많은 것을 이용하고 싶어 창원도서관을 찾게되었습니다.³⁴⁾

제 욕심은 장서 열람차원이라든지,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이 아니고 문화적 공간으로서 도서관을 접근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창원 도서관을 이용한 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크지요. 문화 공간적인.. 또 당시에 제가 창원문인협회가 창립될 당시 사무국장을 거쳐 회장을 했는데 사람을 모집하고 문인협회를 설립한다는 문제가 있어 도서관 접근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저에게는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³⁵⁾

33) 안ㅇㅇ (초등학교 교사, 47세)과 인터뷰, 1999. 7. 2. 17:00 - 18:05, 창원도서관장실

34) 이ㅇㅇ (아동문학가, 46세)과 인터뷰, 1999. 7. 12. 17:00 - 18:15, 창원YWCA 사무실

35) 고ㅇㅇ (창원 예총지부장, 53세)과 인터뷰, 1999. 7. 12. 14:00 - 15:30, 예총 창원지부

3인의 창원도서관 이용경험과 과거 회상을 통해 비쳐진 초창기 창원도서관 이용자들의 모습은 황량한 도시에 교회나 성당이 당시의 유일한 교제의 공간으로 이용되던 시절에 도서관도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며 문화를 누리는 컴퓨터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자신의 삶의 질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걱정하는 주부들이 자녀들과 함께 찾는 교육적 공간의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서관의 본질에 해당하는 장서의 문제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서의 세계가 깊어진 이용자나 전문서적에 대한 요구를 가진 이용자들은 서점을 이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소설 같은 경우와 같이 구입해서 보기에는 돈이 아까운 책들은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전문서적은 도서관에서 빌려보려면 잘 없어 직접 구입해서 보았습니다.³⁶⁾

도서관 갈 때는 모자 독서회 같은 부수적인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은 자료가 풍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시중의 책가게에서 못 찾는 것은 도서관에서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점에 없는 것이 도서관에 가면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힘들게 가보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빌리려고 하면 빌려볼 만한 책이 별로 없어요. ... 독서의 세계가 깊이가 있게되면 지역의 공공도서관의 장서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³⁷⁾

창원도서관이 설립된 초창기 당시의 사회사정은 전두환 정권의 강권 통치로 인해 이에 대항하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상과 지식을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공부방으로서의 역할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소수의 엘리트 의식을 가진 주민을 중심으로 자녀의 교육문제와 자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삭막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 타지에서 이주해온 일부 주민들에게 컴퓨터의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단을 조성해 가는 과정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촉진적 역할을 할 여러 문화관련 단체들이 창원도서관을 매개로 하여 만들어진다. 초창기 창원도서관은 공부방 구실만을 하였다는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오늘날 창원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들의 태아의 역할을 한 공간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6) 안○○ 과 인터뷰(초등학교 교사, 47세), 1999. 7. 2. 17:00 - 18:05, 창원도서관장실

37) 이○○ 과 인터뷰(아동문학가, 46세) 1999. 7. 12, 17:00 - 18:15, 창원YWCA사무실

2. 민간도서관의 등장과 지방화시대의 공공도서관

1) 성립과정의 사회사

전두환 정권의 말기에 직선제 개헌을 위한 6월 항쟁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로부터 6·29 선언을 얻어내었다. 6월 항쟁의 결과 얻어낸 6·29선언은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일선교사들의 참교육운동, 학생운동, 통일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대중들의 사상의 흐름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이전에는 소위 운동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읽었던 좌파적 사상과 지식을 담고 있는 책들이 노동자를 비롯하여 일반시민들도 읽히게 된다. 그 결과 이러한 욕구를 가진 이용자 군이 형성되었지만 기존의 공공도서관인 창원도서관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진보적인 사상과 지식을 제공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의 사회사정이 사상이나 지식의 유통을 제한하는 책에 대한 감시와 검열이 오늘날보다 더욱 엄격했기 때문이다.³⁸⁾ 진보적 성향의 마산·창원지역 이용자 요구를 바탕으로 마산의 중심지인 남성동에 회원제 도서관 형태의 민간도서관인 '책사랑'이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의 도서관이 마산의 '책사랑', 울산의 '글사랑', 진주의 '책마을', 남해의 '책사랑 나눔터' 등 경상남도 도내 전역에 걸쳐 자료중심의 도서관으로 자리를 잡아간다. 마산 남성동에 위치한 '책사랑'³⁹⁾은 마산과 창원의 진보적 성향의 노동자, 교사, 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당시 책사랑의 성격에 대해서는 초창기 책사랑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⁴⁰⁾ 참여한 사람들은 참교육에 참여한 교사,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상과 지식에 있어서 좌우의 스펙트럼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종류의 자료들을 다수 비치하여 제공하게 된다. 그들이 간행한 자료를 보면 책사랑을 통해 그들이 하고자

38) 김영기는 그의 박사학위논문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장서형성의 사회사: 한국사회 지식흐름의 문제와 관련하여」, 188쪽에서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① 상대적으로 인세의 부담이 적은 고전이나 외국문학 번역물, ② 마진이 비교적 높은 문학이나 실용서적의 전집물, ③ 대중의 감각적 요구를 반영한 애정류의 통속소설, 감각적인 수필, 처세술, 무협물이나 수기류, 명상이나 운명관련저작들, 그리고 ④ '구매력이 강한 중산층과 교양에 굶주린 대학생과 여성들의 지적 허영심을 반영한 교양주의에 영합한 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39) 창원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마산지역에 소재한 '책사랑'을 언급하는 것은 창원에 거주한 진보적인 사람들이 '책사랑'을 이용하였고, 1995년 이후 창원지역에 나타난 마을도서관이 '책사랑'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아 나타났기 때문이다.

40) 책사랑이 창립할 당시인 1988년 6월부터 일정기간은 조직의 정비기간으로 보아 《책사랑》창간호를 발간한 11월을 기준으로 참여한 사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만(풀뿌리 문화연구회 대표), 이인식(교사, 경남 교사신문 편집장), 안종복(교사, 마산교협 회장), 이승형(교사, 마산교협 사무국장), 김상범(교사), 이상걸(문화운동), 남두현(경남대학교 강사), 임혜숙(MBC PD, 경남여성회 회장), 도난실(경남신문 기자), 석진국(변호사), 이찬호(노동자, 공동탁주노조 사무장), 성남식(노동자, 동경서리콘 근무), 최두영(대학서림 경영), 전세중(운영간사)(자료: 《책사랑》 제1호(1988. 11), 권두)

하는 일을 알 수 있다.

책사랑 10년의 역사 속에서 압수, 검열, 구속, 운영 난 등 숱한 어려움이 서려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역사적 소명인 지식과 사상의 자유공간을 유지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이영희 교수의 유명한 말도 있듯이 우리 책사랑은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지식과 사상에 있어 좌우의 스펙트럼을 가진 열린 도서관으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⁴¹⁾

열린 도서관을 꿈꾸며 출발한 민간도서관 책사랑은 1988-89년경 마산과 창원의 진보적 성향의 이용자 8,000여명의 회원을⁴²⁾ 확보하며 지역사회의 사랑방 역할을 해 나간다. 이와 관련된 신문기사 한 토막을 들여다보자.

요즘 경남도내 마산을 비롯, 울산, 진주, 진해, 남해 등지에서 민간차원의 지역도서관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 독서문화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들 도서관은 기존의 공공도서관이 안고 있던 한계를 극복, 회원제도를 통해 독서 인구의 저변을 확충하는 한편 각종 출판문화정보와 지역정보의 제공, 각종문화행사의 개최 등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현재 경남도내에는 마산의 ‘책사랑’을 비롯, 울산의 ‘글사랑’, 진해의 ‘한울’, 진주의 ‘책나눔, 사랑나눔’, 남해의 ‘책사랑 나눔터’ 등 모두 10여 개의 지역도서관이 있다. 함안, 삼천포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간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그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민간차원의 지역도서관운동이 본격화 한 것은 지난해 6월 마산시 남성동 성당 옆골목의 한 건물 3층에 출판문화정보공간이라 불리는 ‘책사랑’이 생기면서부터. 전세중씨(30. 책사랑 운영간사) 등 몇몇 뜻 있는 젊은이들이 공동출자, 70평의 공간에 1만5천여 권의 책과 1백20석의 자리를 갖춘 ‘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을 마련했던 것이다. ... 뚜렷한 문화공간이 없었던 데다 한 권에 3천4천 원하는 책값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많은 시민 학생들에게 책사랑은 큰 인기를 얻어 현재의 회원수가 4천명에 이르며 가입자가 하루 평균 20여명씩 불어나고 있다. 엄마의 손을 잡은 유치원생으로부터 방학을 맞은 중·고생, 가정주부, 70대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원들은 오전 9시 30분 경부터 나와 줄을 서서 기다린다.⁴³⁾

그러나 1989년 하반기부터 불기 시작한 공안정국은 책사랑의 주요한 고객이던 노동자, 교직

41) 전세중 「민간도서관 책사랑의 역사성」 1998.(자체보고서)

42) 전세중은 책사랑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1990년 6월 30일 구속된다. 구속될 당시 진술서에 나타난 이용회원은 학생(초·중·고·대학생 포함) 2,400명, 노동자 3,000여명, 일반여성 2,600여명 등 총 8,000여명으로 나타나 있다.

43) 「경남 민간도서관운동 활발」 《조선일보》, 1989. 2. 22.

원 노조관계자, 운동권 학생 등의 이용을 위축시켰으며, 교장단 회의에서 책사랑이 불온집단이라는 발언이 나오는가하면 일선학교에서 책사랑 이용학생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데올로기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 받는 우리사회에 사상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도서관을 지향한다는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책사랑 소장 일부도서가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실무를 맡고 있던 전세중이 구속된다.⁴⁴⁾

1992년에 들어서면서 책사랑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사회환경이 바뀌게 된다. 이는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1992년 대선에서 민주세력이 패배함에 따라 진보적 지식에 대한 열정이 수그러들고, 상업적 도서대여점의 등장에 따라 책사랑 이용률의 퇴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책사랑은 기존의 민주도서관 운동에 대한 궤도수정을 하게 된다. 이것이 1993년 '책의 해'를 맞아 당시 책사랑 관장을 맡고 있던 전세중과 경남신문사 기자로 있던 박영석을 중심으로 마을도서관 운동이 창원에서 전개된다. 오늘날 창원의 마을도

44) 당시 책사랑에서 소장한 도서 중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압수당한 도서목록은 다음과 같다. 『얼 양키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청춘농가』 『태백산맥』 『봄우뢰』 『암록강』 『조선의 아들』 『민중의 바다』 『갑오농민전쟁』 『탁류』 『백두산』 『북한의 통일정책 변천사』 『사이공의 환옥』 『세계 철학사』 『내영혼 대륙에 묻어』 『녹두서평』 『사람됨의 철학』 『김일성 사상비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낮은 울랐다』 『철학사전』 『노동자의 철학』 『조직전략전술』 『통혁당』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 『민중의 함성』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해방 전후사의 인식』 『북한의 혁명론』 『북한의 현대사』 『베트남 혁명연구』 『반핵의 논리』 『새 삶을 위하여』 『선거와 의회전술』 『강좌 철학』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소비에트 철학』 『일하는 자의 철학』 『폐다고지』 『조선문화사』 『미제침략사』 『김일성평전』 『들어라 양키들아』 『조선문화사』 『민족해방철학』 『항일무장투쟁사』 『진달래』 『북한의 경제』 『지리산』 『철학문답』 『노동자의 철학』 『한국전쟁과 한미관계』 『미완의 귀환일기』 『강철서신』 『노동교실』 『해방조선』 『러시아혁명사』 『민중의 역사』 『한일관계 인식』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 『사무직 전문기술 노동운동』 『레닌』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민족자주화운동론』 『칼막스 자본론』 『세계노동운동사』 『조선근대사』 『책 그 사실과 논리』 『현대민족사의 재인식』 『민족자주화운동론』 『변증법적유물론』 『사회주의 혁명론』 『북한현대사』 『노동해방문학』 『변혁과 통일』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 『노동자의 깃발』 『동지여 나의 동지여』 『민주화의 길』 『전국 노동자 문화패』 『반민주보수연합의 본질과 대응』 『나는 왜 평양에 갔나』 『참민주 시대를 향하여』 『풀무』 『민주화의 길』 『미군은 왜 한국인을 마음대로 때릴 수 있나』 『일꾼시사교육』 『노동운동』 『근대철학에서 현대사상』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세계와 인간』 『현대 조선역사』 『암록강』 『조선통사』 『영도체제』 『영도예술』 『북한조선노동자대회』 『근대조선역사』 『김일성선집』 『조선노동당약사』 『북한의 문예이론』 『조선문학통사』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민중의 바다』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론』 『조선전사』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 『애국시대』 『북한의 사상』 『주체학습론』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론』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혁명의 여명』 『말』 (90. 5) 『역사란 무엇인가』 『북한사회의 재인식』 『한국 민주사』 『인민의 전쟁 인민의 군대』 『영국민주사』 『변증법적 논리학의 역사와 이론』 『사관이란 무엇인가』 『민중운동의 인식과 전략』 『서양중세사상사론』 『철학의 정립』 『마르크스 엥겔스 혁명론』 『혁명적 세계관과 청년』 『인간은 늑대인가 양인가』 『고구려 역사』 『사적 유물론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아름다움과 추함』 『ML 계급론』 『운전기사의 임금과 세금』 『마스레닌주의 입문』 『격동의 동구 현대사』 『현대사회주의의 비교연구』 『당신에게도 유령은 나타난다』 『마스의 방법론』 『역사와 혁명』 『모순과 실천』 『아우구스티누스』 『철학의 사회적 기능』 『사람됨의 철학』 『현대소외론』 (자료 : 책사랑 압수도서목록(경남경찰국 대공과, 1990. 5. 24))

서관은 책사랑 정신이 모체가 되어 나타난 주민참여 형태의 도서관이다.

한편 1986 이후 3저 현상의 여파로 창원공단 가동률의 급신장은 창원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와 1991년도에는 1986년의 인구의 거의 배에 해당되는 36만 여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인구가 40여만 명을 바라보면서 창원시는 우리가 사는 곳이라는 의식을 창원시민들이 갖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다다르게 된다. 이에 따라 1990년대를 맞으면서 창원을 우리가 사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사회적 분위기도 우리사회를 주도해 왔던 성장의 논리, 경제의 논리로부터 삶의 질을 바탕으로 한 인간화의 논리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의 성숙은 지방자치제 부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유신헌법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남북통일을 규정해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를 근본적으로 금지시켰던 것을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에서 지방의회를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며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서 시작되었다. 1987년 6월 시민항쟁과 6·29 선언에 이어 나온 10월 27일의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시·군·자치구 의회를 먼저 구성하고 그 다음 시·도의회를 구성하되 실시시기는 잠정적으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가능성이 열렸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제7차 개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부활근거를 마련하였고, 1990년 12월 제8차 개정으로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30여 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⁴⁵⁾ 이에 따라 창원시에도 1991년부터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손에 의해 구성되었다.

창원시립도서관이 개관된 1993년을 기준으로 창원시에는 유치원이 71개, 초등학교 35개, 중학교 17개, 고등학교 11개, 전문대학 1개교, 기능대학 1개교, 종합대학교 1개교, 기존의 가향문학회 외에 트락문우회(1990), 창원문학아카데미(1993) 등의 문인들의 모임이 결성되고, 창원미협이 결성되어 각종 미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음악분야에서는 창원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합창단, 창원어린이합창단, 경남오페라단 외에도 많은 연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악, 무용, 연극, 사진 등 분야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조직되어 나름의 전문적인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단계로 나아간다.⁴⁶⁾ 이러한 여건의 성숙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동안 마산에 의존하던 위성도시적 성격에서 스스로 자립하는 자족적 완결도시로 나아가 창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심이 형성된다. 이러한 도시의 성장 과정에 창원시는 주민들의 정주의식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1993년 12월 '창원시립도서관'을 개관하게 된다.

45)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1995, 70-73쪽.

46) 昌原市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369-690쪽.

2) 역할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6·29선언 이후 억압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해결해 주지 못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고자 나타난 책사랑은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적 성향의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책사랑을 이용한 이용자는 대학생, 마·창지역 근로자, 참교육운동 참여교사, 중·고교생 등이 주요한 이용자로 나타난다. 이들 중 당시 책사랑을 일상적으로 이용한 이용자 3인⁴⁷⁾을 선정하여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생활사를 인터뷰하였다.

1988년 6월 25일 창립된 책사랑은 설립된 초기 몇 달 동안은 막연히 지역출판문화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개인사비를 여러 명이 출자하여 운영한 북 카페적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책사랑 내부가 도서관적 성격보다는 북 카페적 성격이 강하다보니까 잡담과 담배연기로 내부는 혼잡했고, 열람장소는 회원들의 독서대가 아니라 차를 강매하는 곳으로 전락하였다. 여기저기서 회원과 직원들간의 논란이 벌어지고, 학생과 노동자들은 책사랑을 도서관으로 여기기보다는 돈이나 벌자고 하는 상업적인 장소로 비난하기 시작했다.⁴⁸⁾

책사랑은 1988년 말부터 북 카페적 기능을 청산하고 열람기능을 강화하여 민주도서관으로 나아가게 된다. 당시 마산·창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이 전국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⁴⁹⁾ 교사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시기라 자연스럽게 책사랑에 진보적 성향을 지닌 이용자들이 모여들었다. 인터뷰에 응한 3인은 당시 창원에 거주하면서 마산의 책사랑을 이용한 사람들이다.

책사랑을 이용한 3인은 앞의 창원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한 이용자들이 창원도서관을 이용하기 전 다른 도서관을 이용해온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창원도서관을 찾은 것과는 달리 기존의 도서관에 대한 이용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으며, 또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편이다. 기존의 도서관이 이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원인으로 보인다. 당시 책사랑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하나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지성이 판을 치

47) 인터뷰를 한 3인은 다음과 같다. 박ㅇㅇ은 현재 고등학교 교사이며 전교조 경남지부에서 활동중이고, 전ㅇㅇ은 전교조 참여로 해직 후 복직된 초등학교 교사이며, 김ㅇㅇ은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에서 노조간부로 활동중인 노동운동가이다.

48) 책사랑 활동 보고서, 1991. 12. 3(책사랑 자체 문건)

49) 마창지역의 노동운동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를 모아 1987년 12월 마산·창원 노동조합총연합회를 건설하고 자주적 민주노조운동 전개하였다. 그 이후 전노협 건설과 사수의 주역으로서, 민주노총 건설의 주역으로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핵심을 이루어 왔다.(김하경, 『내 사랑 마창노련』(상), 갈무리, 1999, 13쪽.)

고, 무엇이 양서이고 금서인지 혼란스러운 시절에 사상과 지식의 유통구조에 왜곡현상을 타파 하자는 책사랑 정신에 따라 새로운 사상과 지식에 대한 요구를 가진 노동자, 학생, 참교육 운동교사 등에게 진보적 사상과 지식의 제공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인터뷰에 응한 3인은 그들의 지적욕구를 책사랑이 충족시켜 주어 책사랑의 장서구성에 절대적 신뢰를 보이면서 책 사랑을 일상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교육 운동에 참여한 박ㅇㅇ은 책사랑에 비친 장서라면 절대적 신뢰를 갖고 무조건 읽었으며, 전교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진ㅇㅇ은 일반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생생한 자료를 볼 수 있고, 문턱이 높지 않아 토론과 좌담회를 하는 시설로 활용하였고, 노동운동을 하는 김ㅇㅇ은 사회과학 서적과 역사서적들이 많아 노동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받은 장소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보통 책을 고를 때 내용을 보지 않았을 경우 이 책이 내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고민하는데, 책사랑은 순기능만 있다는 절대적 신뢰감을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료를 이용했습니다.⁵⁰⁾

일반 도서관에 가서는 생생한 자료들을 구할 수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일반 공공도서관에는 일반 소설류 등 교양적인 도서만 있는 것 같고 또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높아 이용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사랑에서는 도서대출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자료도 열람하고, 필요한 책도 구입했습니다. 토론도 하고, 좌담회도 하고 했습니다.⁵¹⁾

도서의 내용들도 좀 진지한 사회과학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성심 성의껏 저희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곳에서 역사관련 서적, 노동관련 월간 잡지, 사회과학 서적들이 많아 노동운동을 하는데 사상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장소였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에게 노동운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였습니다.⁵²⁾

책사랑이 수행한 또 하나의 역할은 모든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쉼터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안정국이 계속될 즈음 책사랑 나름의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지 않고 사회 각계 각층의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 얘기를 나누는 쉼터의 역할도 하면서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50) 박ㅇㅇ (고등학교 교사, 40세)과 인터뷰, 1999. 7. 6. 17:00-18:05, 양재한 교수 연구실.

51) 전ㅇㅇ (초등학교 교사, 41세)과 인터뷰, 1999. 6. 29. 15:20 - 17:00, 소담초등학교 6학년 3반 교실.

52) 김ㅇㅇ (노동운동가, 36세)과 인터뷰, 1999. 7. 7. 16:00 - 17:30,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2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0권 제 3호)

또 하나 책사랑을 찾은 이유는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도서관을 찾기에는 거리감이 있었고 책사랑은 사람 만나는 역할도 하였기 때문에 즐겨 찾았습니다.⁵³⁾

전교조 일로 해직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시설로 책사랑을 이용했습니다. 아마 해직된 때가 1989년도입니다. 당시 이 분야에 관계하던 분들이 이용을 해본 후 좋은 곳이 있다고 소개해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해서 한번 가보았죠. 보통 서점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고, 장소도 좁았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오고 당시 필요한 내용의 책들도 있고 자료도 좀 있었어요.⁵⁴⁾

책사랑은 책을 읽는 공간일 뿐 아니라 사랑방 역할, 즉 대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이용자들이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는 사회 분위기였는데, 그러한 분위기에 책사랑은 자양분이 되었습니다.⁵⁵⁾

이외에도 자체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노찾사 공연 2회, 작가와의 만남, 독서학교, 비디오 상영 등의 주로 운동성을 지닌 문화활동을 실시하였으나 당시의 시대상황이 이러한 활동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⁵⁶⁾ 그러나 1992년을 기점으로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대선에서 민주세력의 패배 등의 요인으로 진보적인 사상과 지식에 대한 요구가 수그러들면서 책사랑은 새로운 변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새로운 사상과 지식의 제공처, 마산의 중심가 남성동에서 지역의 의식 있는 사람들의 사랑방 구실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도서관 형태로 탈바꿈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1995년 창원에 나타난 마을도서관이다.

1993년 개관한 창원시립도서관은 기존 도서관이 공부방 구실을 벗어나지 못하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개관할 당시인 1993년부터 마을도서관이 나타날 시점인 1995년까지 창원시립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당시 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한 3인⁵⁷⁾의 이용경험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들 3인의 이용경험은 주관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창원시립도서관의 개관업무를 실제 담당하였고 현재 사서계장을 맡고 있는 안○○의 증언, 창원시립도서관의 유일한 간행물인 '도서관 정보', 당시의 신문 기사를 참고로 하여 보완하였다.

53) 박○○(고등학교 교사, 40)과 인터뷰, 1999. 7. 6. 17:00 - 18:05, 양재한교수 연구실

54) 진○○(초등학교 교사, 41세)과 인터뷰, 1999. 6. 29. 15:20 : 17:00, 소담초등학교 6학년 3반 교실

55) 김○○(노동운동가, 36세)과 인터뷰, 1999. 7. 7. 16:00 - 17:30,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56) 전세중, 「책사랑이 걸어온 길 : 민간도서관 책사랑 10주년을 돌아보며」(자체보고서), 1999. 6. 27.

57) 창원시립도서관 이용경험 인터뷰를 한 사람으로 엄○○, 박○○(까치독서회 부회장), 홍○○은 모두 창원에서 주부로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1990년대 도서관 이용자들은 1980년대의 주요 이용자인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이나 진보적 성향의 이용자들과는 달리 평범한 이웃이 주요한 이용자로 나타나 이들을 인터뷰하였다.

창원시립도서관이 개관하기 전 유일한 공공도서관이었던 창원도서관은 교육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위치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창원도서관은 이미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요즘처럼 자료 이용이 많아지고, 이용계층도 다양해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봉사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온 이후인 것 같습니다.⁵⁸⁾

창원시립도서관은 주택지에 위치하고 있어 개관하자마자 지역주민의 정보·문화·평생교육을 위한 시설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도서관으로 사랑을 받게 된다. 그야말로 다기능 다목적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 동안 창원시민들이 주민들과 함께 하는 도서관 봉사에 얼마나 굶주렸던가를 창원시립도서관 개관 후에 도서관을 찾은 이용자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신문기사에서도 알 수 있다.

창원시립도서관이 지난해 12월 14일 개관 이래 1개월 만인 14일 3만 번째 입장객(창원 토월중 3년 이진호)을 돌파하면서 연일 만원사례로 비명을 올리고 있다. 사정에 의해 개관을 서둔 탓으로 1층 정기간행물실과 주부아동열람실, 2층 개가열람실, 3, 4층 자유열람실 등만 우선 개방되었으며 지금도 30여명의 직원들이 공휴일도 없이 시민들의 독서공간 마련을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⁵⁹⁾

창원시립도서관이 지역문화센터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창원시립도서관은 지난해 12월 14일 개관한 이래 학생 주부 근로자 등 5만 여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등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창원시립도서관이 공부방으로 전략한 기존의 일반도서관과는 달리 어린이, 청소년, 주부, 근로자 등 모든 사람들이 영상, 음악을 비롯한 각종 오락과 휴식, 독서, 정보 등 각종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청각실의 경우 방음시설을 완료하여 각종 음악프로그램, 예컨대 클래식과 팝송, 상송, 가곡, 국악, 민요 등 장르별로 세분하여 영상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LDP를 다량 확보하고 있다. 또 1백20인치 대형 빔 프로젝트와 모니터를 갖춘 시청각실에서 상영하고 있는 문화영화는 주로 명화를 중심으로 상영하고 있다. ... 주부아동열람실의 경우 당초 54명의 수용시설을 갖추었으나 인근지역에 국민학교가 2개나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매번 돌아가는 학생이 많아 1백2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한편 부족한 아동도서를 추가구입하고 있다.⁶⁰⁾

58) 윤ㅇㅇ (창원도서관 기능직 직원, 54세)과 인터뷰, 1999. 7. 2, 16:00 - 17:00, 창원도서관 지원협력계

59) 「창원시립도서관 즐거운 비명」 《경남신문》, 1993. 1. 12

60) 「창원시립도서관 지역문화센터로 인기 : 작년 12월 14일 개관후 5만명 찾아」, 《경남신문》, 1994. 2. 1.

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자료이용자가 몰려들게 됨은 창원시의 태생적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 창원시는 자연발생적인 도시와는 달리 외지유입인구가 주민들의 90%를 넘고 있어 안정된 공동체적 성격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이며, 문화적 혜택의 불모지나 다를 바 없는 삭막한 도시였다. 이에 비하여 공단조성과 도 단위 행정기관의 유치로 주민소득과 학력수준은 어느 도시보다 높아 지역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높은 도시이다. 인터뷰에 응한 3인도 이러한 유형의 지역주민에 속한다. 3인은 모두 집 가까이 도서관이 세워져 자연스럽게 이용자가 되었으며, 이미 이동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창원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시립도서관 이용자가 된 과정은 집 가까이에 창원시립도서관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호기심도 있고 해서 남편이 책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함께 도서관을 많이 이용했습니다.⁶¹⁾

시립도서관을 이용하기 전에는 창원도서관의 이동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이 생기면서 시립도서관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⁶²⁾

시립도서관이 개관하기 전에는 창원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창원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을 이용했는데 거의가 신간이 없는 헌 책이고 시립도서관이 생기고부터 집이 가까이 살다 보니까 시립도서관이 눈에 선명히 들어오니까 저기에 가면 좋은 책 있겠지 싶어 이용했습니다. 시립도서관에가 영화도 보고, 또 열람실서 신문이나 잡지도 보곤 합니다.⁶³⁾

창원시립도서관은 개관할 당시부터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인 열람과 대출뿐만 아니라 컴퓨터 강좌, 영화감상, 음악감상 등을 실시하였으며, 취미교실로 문학교실, 비디오강좌, 꽃꽂이, 서예교실, 한문교실, 공예교실 등을 운영하였다. 이외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강좌도 개설하였다. 당시 이들 강좌를 수강하려는 희망자가 많아 수강생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다고 한다. 개관 1-2달만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한마음 어린이 독서회', 주부를 대상으로 한 '까치 독서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독서회'가 창립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개관 초기부터 문화센터 기능의 활성화는 1993-94년 당시의 창원의 사회사정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수필가이자 소설가인 이광수 초대 관장의 문화에 대한 집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61) 엄ㅇㅇ(주부, 43세)과 인터뷰, 1999. 7. 5. 10:00 - 10:40, 창원시립도서관 편집실

62) 박ㅇㅇ(주부, 43세)과 인터뷰, 1999. 7. 5, 10:50 - 11:30, 창원시립도서관 편집실

63) 홍ㅇㅇ(주부, 49세)과 인터뷰, 1999. 7. 13. 17:00 - 18:15, 현대아파트 113동 1106호

예술계와 접하면서 창원이 문화적으로 굼주린 도시이고, 삭막한 공장만 돌아가는 도시이므로, 인근 마산, 진해와 같은 기존의 도시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까를 창원시 공무원으로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시민들의 정서적 위안을 제공해 주는 그런 곳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곳으로 도서관을 생각했습니다. ... 도서관이 처음 개관되었을 때 문화 시설에 굼주린 자들에게 영화, 음악감상, 취미생활, 사진기술도 배울 수 있도록 각 종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동시에 책도 열람 할 수 있도록 해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⁶⁴⁾

인터뷰에 응한 3인은 창원시립도서관이 주민과 함께 삶을 나누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알고 싶은 지식이나 듣고 싶은 강좌가 있을 때 집 가까이 찾아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하고 있다. 이들에게 도서관은 이미 일상의 삶의 공간으로 다가와 있다. 3인은 아이들 교육과 자신의 교양을 넓히기 위한 수준에서 창원시립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평범한 주부의 입장에서 도서관에서 비치된 자료만을 열람할 때는 큰 불편을 느끼지 않지만, 아이들 과제처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찾을 때는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장서구성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문화강좌의 활성화는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끌어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도서관 본래의 기능인 책을 통한 지식과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문화프로그램을 수행한다는 전시성 행사위주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거나, 주민들이 사색하고 깊이 있는 삶을 나누는 공간인 조금은 무거운 느낌이 드는 도서관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창원시립도서관을 찾을 때 전문적인 도서를 찾기보다는 교양과 관련된 도서를 찾았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은 없었지만 간혹 찾는 자료가 없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가를 보내고 싶어 교양적인 도서를 찾거나 저희 집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찾으려 가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⁶⁵⁾

주부들은 특별한 자료를 찾기보다는 비치된 자료만을 열람하는 경향이 있어 찾는 자료의 부족을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⁶⁶⁾

시립도서관에 꼭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때는 창원대학 도서관에 가서 이용한 일이

64) 전 창원시립도서관장 이광수와 인터뷰, 1998. 6. 11. 15:00 - 16:40, 창원시청 민방위재난과장실.

65) 임ㅇㅇ(주부, 43세)과 인터뷰, 1999. 7. 5. 10:00 - 10:50, 창원시립도서관 편집실

66) 박ㅇㅇ(주부, 43세)과 인터뷰, 1999. 7. 5. 10:50 - 11:30, 창원시립도서관 편집실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시립도서관에는 없어요. 주로 시립도서관에는 교양적인 책밖에 없거든요. 깊이 있는 책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도서관 행사 위주로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녀..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갔다가 나오는 그런 것 보다 어린이 구연동화를 해서 선생님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 줘서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수채화나 서예도 좋지만 좀 더 책하고 친해 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도서관이라면 책을 연상시키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좌도 참 많이 하더라고요.⁶⁷⁾

3인 중에는 창원시립도서관과 가까이 있는 용지마을도서관을 시립도서관과 함께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시립도서관은 마을도서관보다 좀더 깊이가 있는 지식이 필요할 때 이용하고 마을도서관은 좀 가벼운 책이 필요할 때 찾는다는 것이다. 현재 창원에는 공공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이 운영상에 서로간 역할분담이 안된 상태이지만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역할분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떨 때는 시립도서관에 없는 책이 마을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왜냐면 반납이 조금 더 빠르고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시립도서관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주부들이 볼 수 있는 신간 등은 오히려 그쪽이 더 먼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립을 갈 때와 마을 도서관에 갈 경우는 마음이 좀 다르거든요. 시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마을도서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좀 다른데, 마을 도서관에서는 주로 주부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전문서적 보다는 가벼운 책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책들이 마을 도서관에 많이 있다는 얘기고...저 같은 경우는 마을 도서관은 편한한 것은 있지만 시립도서관에 가면 무거운 어떤 공부하는 분위기가 좋거든요.⁶⁸⁾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6·29 선언이후 진보적 사상과 지식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마산의 '책사랑'이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동구권의 붕괴이후 진보적 사상과 지식에 대한 요구가 수그러들면서 '책사랑'은 민주도서관의 개념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대중도서관의 개념으로 변화를 추구한다.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고 그 후에 세워진 창원시립도서관은 정보·문화·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다목적 도서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문화의 기능 강화로 주민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만 도서관 본래의 기능인 충실한 장서구성을 통한 지식과 정보제공의 기능은 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67) 홍○○ (주부, 49세)과 인터뷰, 1999. 7. 13. 17:00 - 18:15, 현대아파트 113동 1106호

68) 홍○○ (주부, 49세)과 인터뷰, 1999. 7. 13. 17:00 - 18:15, 현대아파트 113동 1106호

3. 주민참여 형태의 마을도서관

1) 성립과정의 사회사

지식과 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주민운동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후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실체가 나타나기까지는 2년 정도의 주민운동 차원의 준비과정이 있었다. 창원이라는 땅에 도서관을 바로 세워보자는 주민운동은 1993년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책의 해’를 기점으로 싹트기 시작한다. 이 운동의 출발은 당시 마산의 민간도서관 운동을 주도하던 ‘책사랑’의 도서관장으로 있던 전세중과 경남신문사 기자로 있던 박영석이 ‘책의 해’를 맞아 ‘책의 해 경남조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뜻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부터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과 나는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매개로 만남이 시작되었다.

‘책의 해 경남조직위원회’ 조직에 대한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 채 1993년은 저물어 가고 1994년을 맞게 된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고, 아쉬움 속에서 함께 모여 논의를 한 결과 도서관 문제를 연구 실행하기 위한 운동단체인 연구소를 세우기로 하고, 동년 6월 29일 지역인사 15명이 모여 창원도서관 회의실에서 가칭 ‘경남도서관 및 정보문화발전연구소(현재의 명칭은 경남정보사회연구소)’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⁶⁹⁾ 지혜를 모으는 도중 서로간 대립과 갈등도 많았지만 1994년 10월 4일 연구소 개소식을 창원도서관 별관에서 가졌다. 당시 개소식 선언문의 일부를 들여다보면 참여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터와 때를 바탕으로 한 도서관 얘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보와 지식을 찾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이 다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매일 3시간이상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며, 차를 타면 라디오를 듣고,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본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들은 매체산업의 장사를 위하여, 또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조작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정보와 지식을 만들고 소통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요구대로 사라고 하는 것을 사며, 보라고 하는 것을 보며, 유행시키는 음악을 읊조린다. 그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좋고, 그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나쁘다고 반복한다. 내가 찾고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데는 없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갖고 이웃과 함께 세상을 만들면서 살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유희의 대상이 아니

69) 이 당시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공동대표로 이은진(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양재한(창원전문대 문헌정보과 교수), 정영애(창원대 교육학과 교수)가 선출되었으며, 그외 참여자는 김장섭(한국중공업 자료실장), 김종대(마산시의원), 박상표(수강한의원 원장), 박애경(창원도서관 사서과장), 박영석(경남신문사 기자), 변태현(창원대 도서관 정리과장), 서휘(창원전문대 문헌정보과 교수), 우무석(경남문인협회 사무차장), 전세중(책사랑 도서관장), 전창배(KIMM 선임기술원), 정기영(창원시의원), 차정인(변호사)이 참여하였다.

다. 우리는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의견을 말하며, 원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경남 도서관 및 정보문화발전연구소」는 정보와 지식의 주권운동을 선언한다.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의 정보와 지식을 갖고자 원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같이 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우리지역은 중앙에 종속된 지역이 아니다. 중앙에서 생산된 정보와 지식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흉내내는 동네가 아니다. 이제 정보와 지식의 중앙 종속, 권력과 상업적 목적의 종속을 피하고 '정보와 지식의 자치' '정보와 지식의 자립'을 선언한다. 400만 경남도민은 더이상 도서관, 사서, 장서의 수, 법제도의 미비점을 방관만 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가 없이 경상남도의 도서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나서지 않는데 누가 해결해 준다는 말인가? 이제 우리는 지역주민의 힘으로 도서관을 건설하며, 우리가 가진 맘, 동진, 지혜를 모아 경상남도에 우리의 도서관을 건설하는 운동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소는 '참여를 통한 정보와 지식의 소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① 우선 지역의 정보와 지식소통을 양자 소통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즉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정보와 지식이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정보와 지식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공동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② 이를 위하여 우리 주변에, 친근한 이웃에 마을도서관을 구축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마을의 회관, 아파트 복지센터, 관청, 공공건물, 종교시설, 학교, 직장 등 빈 공간을 이용하여 우리들 스스로 유연한 마을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③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들의 유대감은 문화 중심지로서 마을이 자리잡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마을도서관을 정보와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고받는 터전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단순히 중고교생들의 독서실이나, 유행하는 소설류의 보급처가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 의논하고, 주민과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며, 또 도움을 약속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을 넘어서서, 판료적인 절차와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서서, 돈과 욕심을 넘어서서 개척자적인 결단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주민의 참여를 통한 마을도서관 운동에 모든이가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⁷⁰⁾

도서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1995년부터 구체적으로 창원에서 일어난다. 이와 때를 맞추어 1995년 6월 27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공민배 후보⁷¹⁾가 마을마다 마을도서관을 세우겠다는 것을 선거공약

70) 이 글은 1994. 10. 4. 창원도서관 별관에서 개소한 '경남도서관 및 정보문화발전연구소' 개소식에서 당시 연구소 추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은진 교수(경남대학교 사회학과)가 작성·발표한 글로 연구소 창립 선언문에 해당된다.

71) 그는 1995년 6월 27일 실시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하였으며, 1998년 6월 4일 실시한 기초단체장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와 당선되어 현재 창원시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으로 내세워 시장에 당선된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연구소에서는 1995년 7월 1,800여 세대가 사는 사파동성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자치도서관 성격인 사파동성마을도서관을 개관하도록 지원하였으며,⁷²⁾ 동년 8월에는 봉림복지회관내에 봉림마을도서관을 개관하였다.⁷³⁾ 이어 1996년 1월부터 창원시내에 나머지 8개 복지회관에 대한 운영권도 창원시가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 위탁해 옴에 따라 동년 5월에는 팔룡마을도서관, 반지마을도서관, 사림마을도서관, 중앙마을도서관, 대원마을도서관을 개관하게 된다. 이어 1997년 1월에는 나머지 3개 복지회관에 동정마을도서관⁷⁴⁾, 사파마을도서관, 봉곡마을도서관을 개관하였다.

1997년 창원시는 인구가 50만에 육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던 중 타 시에서 실시하는 구청제보다는 구청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행정의 계층구조를 감축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동의 역할과 기능을 증대시키는 지방행정의 창의적 모델로 대동제(大洞制)를 동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대동제의 실시로 기존의 24개의 동을 12개의 동으로 개편함에 따라 기존 동사무소를 문화복지센터 성격인 동민의 집으로 확대 개편하게 된다. 이에 동년 7월에는 용지동민의 집에 용지마을도서관을, 10월에는 명곡동민의 집에 명곡마을도서관을 개관하게 된다. 기존의 의안동, 동정동과 소계동이 통합하여 의창동으로 개편함에 따라 동정동사무소에 있던 동정마을도서관은 의창마을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어 동년 7월 이전하게 된다.

이때를 기점으로 마을도서관 운동에 대하여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외에 타 사회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동년 5월에는 새로이 개관한 남산복지회관을 경남여성회에서 위탁관리하면서 남산마을도서관을 개관하게 된다. 대동제 실시와 함께 기존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시설이 휴식시설로 남아돌게 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활용을 논의하던 중 6개 시설물을 민원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민원센터 내에 마을도서관을 개관하게 된다. 마을도서관 운영은 기존의 방식으로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데, 1998년 2월 사회복지법인인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계마을도서관을, 복지법인 회원에서 명서 2동 마을도서관을,⁷⁵⁾ 자원봉사단체인 명서

72) 사파동성 마을도서관은 아파트 내에 독립된 단층 건물로, 규모는 29평 정도이고 주민자치도서관 성격이며,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회를 지원하여 세운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개관 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73) 창원시에는 신도시 및 공단조성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경제사회 및 문화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이주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9개의 이주민 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창원시 사회진흥과 자체평가 자료에 의하면 마을학교와 공부방 외에는 상시 활용되지 않으며, 공부방은 중·고등학생의 하교 후에만 이용되고 있어 낮에는 텅빈 건물로 방치된 채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창원시 사회진흥과, 창원시 복지회관운영 활성화 방안(1995, 1쪽). 이에 복지회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봉림복지회관을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 위탁하여 시범사업으로 마을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74) 서상복지회관의 주변환경이 상업지구라 마을도서관 위치로 적합지 않아 서상복지회관 인근 동정동사무소 2층에 '동정마을도서관'을 개관하게 된다.

75) 복지법인 회원에서는 1998년 9월 위탁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약칭, 민예총) 창원·마산지부에서 1999년 1월부터 위탁운영하게 된다.

동 새마을협의회에서 명서 1동 마을도서관을, 여성인권운동단체인 창원여성의 전화에서 신월 마을도서관을, 여성운동단체인 경남여성회에서 내동마을도서관과 가음정마을도서관을 개관하게 된다.

1999년에 들어와 창원시는 아파트 단지내의 유희시설에 마을도서관을 세우기로 하고 창원시 소유가 아닌 공동주택단지 2곳을 우선 지정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시설자금 5,000만원과 월 운영비 200만원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금년 4월 '책사랑 창원지부'⁷⁶⁾에서 대방동 대동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개관한 대방마을도서관⁷⁷⁾이다. 금년 7월에는 지역사회의 도서관 문제를 연구 실행하는 사서 중심의 단체인 경남도서관 발전연구회⁷⁸⁾에서 동읍새마을부녀회와 함께 동읍동민의 집에 동읍마을도서관을 세우게 된다. 현재 창원에는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운영하는 12개의 마을도서관 외에 경남여성회에서 3개관, 창원여성의 전화에서 1개관,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1개관, 민예총 창원·마산지부에서 1개관, 명서동 새마을협의회에서 1개관, 책사랑 창원지부에서 1개관, 경남도서관발전연구회의 지원으로 동읍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1개관 등 8개 단체에서 21개의 마을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20개 마을도서관은 창원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아 운영되고 있다.⁷⁹⁾

2) 역할

1995년을 기점으로 창원에는 창원지역의 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세운 마을도서관이 나타나 기존의 공공도서관과는 조금 다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 동안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공간과는 거리가 있었다. 구태여 옷을 차려입고 차를 타고 가야만 이

-
- 76) 6·29선언 후 급진적인 사회분위기에 힘입어 마산의 중심가 위치하며 마산·창원지역의 사상과 지식 유통 기관의 역할을 하던 책사랑은 1992년을 기점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창원의 마을도서관은 창원시에서 시설과 운영 재정을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위탁운영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마산의 책사랑은 회원제 도서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회원이 줄어들면서 운영난에 봉착하게 된다. 이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중 금년 4월 마산의 합성 2동 구동사무소 2층에 마을도서관을 개관하게 된다. 운영비는 마산시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방동 대동아파트에 세운 마을도서관은 책사랑 창원지부에서 창원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 77) 기존의 사파동성마을도서관을 제외하고 모든 마을도서관은 창원시의 시설물에 마을도서관을 세웠으나 대방대동마을도서관은 창원시의 시설물인 아닌 주민들의 시설물에 창원시가 마을도서관 설립자금을 지원하고 운영은 사회단체에서 맡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창원에는 이런 형태의 마을도서관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78) 경남도서관발전연구회는 기존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마을도서관에 근무하던 사서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이다. 이들은 마을도서관이 사회교육센터화 되어가고, 운영이 사회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현상에서 탈피하고 사서들이 주체적으로 이 지역의 도서관 문제를 연구 실행하기 위하여 창립된 단체이다.
- 79) 총 21개 마을도서관 중 사파동성마을도서관은 주민자치도서관 성격이며, 20개 마을도서관은 창원시로부터 매월 230만원(동민의 집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세운 마을도서관은 월 2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 받아 운영되고 있다.

용이 가능하였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권과는 거리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에는 도시 전체를 3개의 대생활권으로 하여 그 아래에 8개의 중생활권과 40개의 소생활권으로 나누고 있다. 이들 소생활권은 인구 2-3만을 기준으로 보행권과 일치하는 권역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⁸⁰⁾ 소생활권 단위에 세워진 마을도서관은 초·중·고등학교, 구매시설, 파출소 등 근린생활시설들과 함께 주민들과의 일상적인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상성의 공간에는 이웃과 삶을 나누는 공간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가 실현되는 공간이다. 마을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매개로 주민들이 삶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며, 삶을 나누는 공간이다. 나눔을 바탕으로 마을 단위의 문화를 가꿔나가는 마을공동체가 실현되는 공간이며, 정보선진국과 중앙의 강력한 정보흡인력에 흡수되지 않고 그들만의 삶을 굳건히 지켜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다.⁸¹⁾

이러한 일상성의 공간에서 마을도서관을 이용하는 3인⁸²⁾의 생활사를 통해 마을도서관의 역할을 해석하고자 한다. 이들의 경험은 다분히 주관적이므로 1995년 마을도서관 개관 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이○○ 사서의 증언과 마을도서관을 세우는데 동참한 나의 경험도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3인 중 2인은 자신이 주거공간 가까이 마을도서관이 들어서기 전에는 2주에 한번씩 창원도서관에서 운행하는 이동도서관이나 도서대여점, 교회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1인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가 도서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차를 타고 가더라도 자주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바라본 마을도서관의 역할은 자녀를 둔 주부들이 자신의 삶을 살찌우고 자녀들의 과제처리 등 자녀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수강자들이 일정부분 실비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사설학원보다는 저렴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대부분 서로 알고 지내는 이웃에 사는 분들이라 부담 없이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 주부는 구연동화라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그 후속모임으로 '색동나라'라는 동화읽는 어른모임을 결성하여 매주 목요일에 회원들과 모여 독서모임을 계속하고 있다. 읽은 책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인형극도 준비하여 여러 번 공연을 하며 이웃과 삶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모습은 주로 자녀들의 과제물처리를 위해 도서를 열람하는 이용자들이 많고, 동화 읽는 어른모임, 주부자원 봉사단체인 '향기 나눔'에서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등을 제공하는 모습을 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지역주민들

80) 창원시, 『시정백서』, 1998, 450-455쪽.

81) 마을도서관을 통한 정보주권 확립에 관한 상세한 글은 다음을 참조하라. 박인웅·양재한 「공공도서관을 통한 정보주권 확립방안」 《도서관학논집》 제29집(1998 겨울호), 105-140쪽.

82) 인터뷰에 응한 3인은 정○○(주부, 37세)과 안○○(주부, 38세)는 팔룡마을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이며, 한○○(주부, 32세)는 용지마을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이다.

의 공동의 삶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⁸³⁾

주로 아이들이 책을 빌리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처음 와서 느낀 것은 도서관의 문턱이 높지 않다는 것, 주로 주부들이 많이 오는 편이고,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는 많이 오는 편입니다. 중학생들 정도나 초등학교 고학년은 수행평가 등 과제 때문에 오는 편이 많고, 그 나머지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책을 읽기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도서 대출 외에 가을에 문화 전시회를 한 번씩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작품을 내서 하는 거라서 애착이 많습니다. 일반 우리 엄마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서 거리감이 없죠.⁸⁴⁾

다른 사람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여가선용도 하고 보통 아이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오죠. 여기 와서 아이들 과제도 하고, 학교 수행평가 과제도 하고. 여기서 하는 활동 내용이 일반적으로 책도 대출 받고 책도 읽고 각종 모임(동아리), 강좌, 인근의 가까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는 곳으로 이용합니다. 이곳은 다른 곳보다 이용이 편하잖아요. 떠들어도 되고⁸⁵⁾

3인의 공통된 경험은 마을도서관이 가까이 사는 이웃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간이므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친근한 시설로 서로에게 다가서고 있다. 기존의 도서관에서 느끼는 딱딱한 분위기와는 달리 삶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ㅇㅇ은 서울에서 창원으로 이사와 사람들을 교제하고 적응하는데 마을도서관이 있어 더욱 좋다고 말한다. 창원이 자신이 과거 삶을 살았던 서울보다도 더욱 좋아지게 된 요인으로 마을도서관을 통한 이웃과 삶을 나누면 서라고 고백하고 있다.

제가 서울 사람이다 보니 마을도서관을 통해서 더 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빨리 적응을 해서 살아갈 수 있어 좋습니다. 지금은 서울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⁸⁶⁾

그러나 마을도서관은 나름대로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일상 생활공간 가까이 도서관이 있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도서관 규모와 장서의 소장량이 소규모라 아이들의 과제처리를 할 때와 이용자가 좀더 다양한 도서를 요구할 때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규모가 큰 도서관이 인근에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⁸⁷⁾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이라는 시설이

83) 정ㅇㅇ (주부, 37세)과 인터뷰, 1999. 7. 7. 14:00 - 14:50, 팔통마을도서관

84) 안ㅇㅇ (주부, 38세)과 인터뷰, 1999. 7. 7. 15:00 - 15:40, 팔통마을도서관

85) 한ㅇㅇ (주부, 32세)과 인터뷰, 1999. 7. 8. 10:30 - 11:20, 용지마을도서관

86) 한ㅇㅇ (주부, 32세)과 인터뷰, 1999. 7. 8. 10:30 - 11:20, 용지마을도서관

87) 사실 창원시에서는 팔통동 근처에 창원시립서상도서관(가칭)과 가음정동 근처에 창원시립가음정도서관(가칭) 건립 계획을 가지고 설계까지 마친 상태이다. 마을도서관을 통해 도서관 이용에 맞을 들인 이용자는 집 근처에 좀더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한 조각으로 편입되어 가는 긍정적인 모습도 보인다. 이들은 자신들이 찾는 도서가 없을 경우 사서에게 구입신청을 하기도 하고, 마을도서관의 사서가 갖지 못한 전문지식을 가진 이용자는 필요한 도서를 사서에게 알려주는 등 주민이 함께 마을도서관을 만들어 가고 있다.

마을도서관은 사서와 친근하고, 위치가 동네 가까이에 있어 좋으나 아이들 과제를 처리하려면 원하는 책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인근에 서상동시립도서관을 창원시에서 세울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큰 도서관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⁸⁸⁾

집이랑 가까우니까 수시로 언제든지 20, 30분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으니까 좋더라구요. 도서량이 얼마되지 않아 깊이 있는 책은 없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책이 없을 경우에는 사서 선생님께 구입할 때 참고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도서대여점이나 일반 서점을 이용을 합니다.⁸⁹⁾

마을도서관에는 자료의 양이 적어 불편합니다. 저희가 동화모임을 하면서도 애들 그림책 부분이나 동화책 부분에 많은 보관을 해 줬거든요 이 도서관에 매달 괜찮은 책을 추천을 해 주거든요..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 그걸 비중을 많이 두고 하나까 좋은 책이 많이 생겼죠.⁹⁰⁾

그 동안 우리국민은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이다, 또는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창원의 마을도서관이 성립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러한 오명을 씻을 가능성이 엿 보인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공부방으로, 사회교화를 위한 시설로,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로 운영되었다. 어릴 때부터 집 가까이 마을도서관을 이용한 습관을 가진 아이들은 도서관을 공부방으로 생각하지도 않을뿐더러 행정가들이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로 방치하면 이들이 이용자가 되어 주민운동 차원에서 도서관의 내용을 채워줄 것이다. 지방화는 주민참여를 통해서 이뤄가기 때문이다. 그 동안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계에서는 도서관의 제도적인 문제에 매달려 향후 도서관을 튼튼히 세워줄 이용자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경향이 있다. 마을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한 이용자들은 변화의 시대에 도서관의 필요성을 역설해 줄 튼튼한 우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도서관은 이러한 이용자 문화운동의 역할도 하고 있음이 마을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는 이○○은 말하고 있다.

88) 정○○ (주부, 37세)과 인터뷰, 1999. 7. 7. 14:00 - 14:50, 팔룡마을도서관

89) 안○○ (주부, 38세)과 인터뷰, 1999. 7. 7. 15:00 - 15:40, 팔룡마을도서관

90) 한○○ (주부, 32세)과 인터뷰, 1999. 7. 8. 10:30 - 11:20, 용지마을도서관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책만 보고 공부만 하는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집 가까이 있어 쉽게 찾아가 읽고 편안한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야만 주민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도서관 이용습관이 형성될 것입니다. 나중에 더 큰 도서관을 찾거나 좀더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자연스런 도서관 이용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마을 도서관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⁹¹⁾

내가 재직하는 창원전문대학에는 사회교육원이 부설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교육원에는 독서지도자과정인 주·야 각각 40명씩 15주 동안 60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로 주부들이 수강대상자들이다. 현재 2기가 수료하고 곧 3기를 입학시킬 예정이다. 수강하는 주부들에게 마을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마을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주부들을 거의 찾지 못한다. 마을도서관이 독서에 관심이 있는 창원시민에게 일상적인 시설로 다가와 있는 하나의 예이다. 5년여 만에 정보·문화·평생교육을 실현하는 마을공동체 문화가 마을도서관을 중심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공도시 창원의 발전과정에 나타난 창원도서관, 마산의 책사랑과 창원시립도서관, 마을도서관의 역할 변화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창원의 공공도서관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제4공화국 정부의 중화학 공업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기계공업단지의 배후도시로 나타난 창원시는 도 단위 행정 중추기능을 지닌 도시의 기능을 거쳐 지금은 농촌지역의 3개 읍·면을 1995년도에 통합한 후 도농통합도시로서 주거·생산·문화 등 선진화된 복지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 우리사회의 모습도 많이 변화하였다. 경제 성장을 제일로 내세우며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유신정부를 거쳐, 전두환 정권의 강권통치와 이에 항거하는 6월 항쟁을 거치면서 그 결과 6·29선언을 얻어낸다. 6·29선언 이후 새로운 사상과 지식에 대한 요구가 노동운동, 참교육운동, 학생운동, 통일운동의 형태로 사회 각 분야에 나타난다. 그 이후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하는 지방화 시대가 도래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원에 나타난 공공도서관도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에 따라 그 역할이 변

91) 이ㅇㅇ (용지마을도서관 사서, 32세)과 인터뷰, 1999. 7. 12. 15:30 - 16:20, 용지마을도서관

화한다. 1983년 신도시에 새로운 공공시설물 유치차원에서 행정제도의 하나로 세워진 창원도서관은 처음은 공부방 구실을 하지만 이내 직장을 따라 창원에 이주해 온 엘리트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아간다. 창원도서관을 이용하며 문화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은 오늘날 창원의 각 문화단체를 태동하는데 태아의 역할을 하게된다.

6·29선언 이후 사상과 지식의 유통과정의 왜곡현상을 타파하고자 출발한 책사랑은 진보적인 사상과 지식을 요구하는 마산·창원지역의 노동자, 참교육운동 관련교사, 학생들의 사랑방 구실을 하게되며, 마산·창원지역의 시민단체 탄생의 태아 역할도 하게된다. 그러나 1992년을 기점으로 해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92년 대선에서 민주세력의 패배는 진보적인 사상과 지식에 대한 요구가 쇠퇴하면서 책사랑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 그것이 창원에서 마을도서관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또한 1991년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직선으로 구성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다. 이에 창원시는 주민들의 정주의식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993년 창원시립도서관을 개관하게 된다. 창원시립도서관은 개관하자마자 자료 이용자가 모여들게 된다. 과거 공부방 중심에서 자료중심의 도서관으로 자리잡음과 동시에 창원시민들의 문화센터의 역할도 하게된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1995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공민배 후보가 마을마다 마을도서관을 세우겠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시장에 당선된 후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제3섹터 운영방식의 마을도서관이 동네마다 세워진다.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도서관이 동네마다 생겨났으며, 마을공동체 문화가 이곳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현재 마을도서관 이용자들은 몇 년 동안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도서관의 기능에 대하여 맛을 들이고 있다. 일반적인 도서는 마을도서관을 이용하는 반면 좀더 깊이 있는 도서는 기존의 공공도서관을 찾는 이용패턴의 분화현상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창원도서관은 경남교육청에서, 창원시립도서관은 창원시에서, 마을도서관은 사회단체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마을도서관간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새로운 운영방안이 나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다른 하나는 마을도서관이 사회교육센터화 하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마을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보조금액이 부족하다 보니 사회교육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실비를 받아 실무자들의 인건비와 마을도서관 운영비로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교육분야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을도서관 운영과정에 다수 참여하게 되고, 위탁단체로 참여하는 사회단체들이 그들 나름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입장에 있어 마을도서관의 명칭 자체가 사회교육센터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는 다음에 독립된 장으로 다루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논문자료)

- Miao, Qihno. 이숙현 역,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멸망할 것인가 : 공공도서관과 범세계적 지식 혁명」 《도서관》, 제54권 제1호(1999 봄), 92-108쪽.
- 강대훈. 『한국도서관운동론』, 광주, 1990.
- 강준만. 「기록과 평가의 문화를 위하여」 《인물과 사상》 2(개마고원, 1997), 5-9쪽.
- 慶尙南道. 『慶南의 社會指標』, 1998.
- 경상남도. 『事業體基礎統計調查報告書』, 1999.
- 경상남도. 『제38회 경남통계연보』, 1998.
- 金世翊. 『圖書館과 社會』, 韓國圖書館協會, 1971.
- 김석준. 『부산지역 계급구조와 변동』, 한울, 1993.
- 김영기.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장서형성의 사회사 : 한국사회 지식흐름의 문제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논문(부산대학교), 1999.
- 김영기·임영일. 「80년대 지역노동운동사 연구 : 80-87년 마산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대 노동복지연구》, 제10집(1991. 12), 129-166쪽.
- 김영정. 「한국 도시변동의 성격에 관한 시론적 고찰 : 70년대 이후의 도시집적(urban agglomeration)의 가속화와 도시정책의 관계에 대한 분석」 《韓國社會學》, 第21輯(1997 겨울호), 57-76쪽.
- 김정근. 『학술연구에서 문화기술법이란 무엇인가』, 한울, 1998.
- 김정근·장덕현.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함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2호(1999. 6), 55-76쪽.
- 김진경. 『삼십년에 삼백년을 산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일 수 있을까』, 당대, 1996.
- 김하경. 『내 사랑 마창노련』 (상·하), 갈무리, 1999.
- 김희재. 「미군정기 민중의 꿈과 좌절 : 인민위원회운동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부산대학교), 1997.
- 루이스, 오스카. 『산체스네 아이들 I·II·III』 (박현수 옮김), 지식공작소, 1997.
- 朴尙均. 『世界 圖書館 思想史- 近代 圖書館史의 再照明』 (增補2版) 民族文化史, 1994.
- 박인웅·양재한. 「공공도서관을 통한 정보주권 확립방안」 《도서관학논집》 제29집(1998 겨울호), 105-140쪽.
- 세라, 제이 에이치.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 (윤영 옮김) 구미무역, 1984.
- 손홍숙. 「마산과 창원의 교육변화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 사회적 조건과 교육의 변화」 박

- 사학위논문(이화여자대학교), 1996.
- 양재한. 「창원지역 공공 및 마을도서관 이용자 확보방안」 《圖書館學論集》(韓國圖書館·情報學會) 第23輯(1995 겨울호), 211-252쪽.
- 양재한. 「창원지역 공공도서관 성립과정에 얹힌 사람들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 《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제53권 제4호(1998 겨울), 55-93쪽.
- 有末 賢. 「생활사 연구의 시각」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1994, 222-243쪽.
- 전철환. 「국제경제의 체질변화와 1970년대의 한국경제」 『한국사회의 재인식 1』, 한울, 1985. 99-142쪽.
- 정근식. 「집단적 역사 경험과 그 재생의 지평」 『설화와 의식의 사회사』, 문학과 지성사, 1995. 182-232쪽.
- 정영태. 「경제개발과 민주주의의 대립(1960-1987) : 개발연대 지식인의 역할과 반성」, 『한국 지성사의 회고와 성찰 : 근 현대사 100년을 중심으로』, 교수신문창간 7주년 기념 학술세미나(1999. 6. 4)
- 조희연.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한울, 1993.
- 진양교. 『청량리의 일상과 공간 : 일과, 시장 그리고 유곽』, 서울학연구소, 1998.
- 昌源機械工業公園. 『昌源基地十五年史』, 1990.
- 昌原機械工業公園. 『昌原基地五年史』, 1979.
- 창원도립도서관. 《해돋이》(창간호), 1987.
- 창원시. 『1997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8.
- 昌原市. 『市政白書』, 1998.
- 창원시. 『제19회 창원통계연보』, 1998.
- 昌原市史編纂委員會. 『昌原市史』 (상·하), 1997.
- 최경숙. 「직장암환자의 질병경험 : 구술사적 접근을 통한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1995.
- 최성진. 『도서관학통론』 (증보판), 아세아문화사, 1988.
- 최종현. 「도시화와 종주성의 문제」 『오늘의 한국사회』 임희섭·박길성 공편, 나남, 1993, 282-283쪽.
- 하종근 등저. 『21세기를 향한 창원시의좌표와 발전과제』, 창원상공회의소, 1995.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1995.

(문서자료)

《책사랑》 제1호(1998. 11).

4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0권 제 3호)

「경남 민간도서관운동 활발」 《조선일보》, 1989. 2. 22.

「도립창원도서관개관」 《경남신문》, 1983. 11. 16.

「도서관주변 우범화; 보안등 조차 없어 불량배 설치」 《부산일보》, 1984. 4. 20.

「창원시립도서관 즐거운 비명」 《경남신문》, 1993. 1. 12.

「창원시립도서관 지역문화센터로 인기: 작년 12월 14일 개관후 5만명찾아」 《경남신문》, 1994. 2. 1

「책사랑 수색, 북한원전 압수」 《신경남일보》, 1990. 5. 27.

전세중. 「민간도서관 책사랑의 역사성」, 1998.(자체보고서)

전세중. 「책사랑이 걸어온 길: 민간도서관 책사랑 10주년을 돌아보며」 (자체보고서), 1999. 6. 27.

창원도서관 모자독서회 회지. 《넝쿨》 (창간호), 1989. 7. 15

책사랑 압수도서목록(경남경찰국 대공과, 1990. 5. 24)

책사랑 활동 보고서, 1991. 12. 3(책사랑 자체 문건)

(인터뷰자료)

고ㅇㅇ (창원 예총지부장, 53세)과 인터뷰, 1999. 7. 12. 14:00 - 15:30, 예총 창원지부

김ㅇㅇ (노동운동가, 36세)과 인터뷰, 1999. 7. 7. 16:00 - 17:30,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박ㅇㅇ (고등학교 교사, 40세)과 인터뷰, 1999. 7. 6. 17:00-18:05, 양재한 교수 연구실

박ㅇㅇ (주부, 43세)과 인터뷰, 1999. 7. 5. 10:50 - 11:30, 창원시립도서관 편집실

안ㅇㅇ (주부, 38세)과 인터뷰, 1999. 7. 7. 15:00 - 15:40, 팔룡마을도서관

안ㅇㅇ (초등학교 교사, 47세)과 인터뷰, 1999. 7. 2. 17:00 - 18:05, 창원도서관장실

엄ㅇㅇ (주부, 43세)과 인터뷰, 1999. 7. 5. 10:00 - 10:40, 창원시립도서관 편집실

윤ㅇㅇ (창원도서관 기능직 직원, 54세)과 인터뷰, 1999. 7. 2. 16:00 - 17:00, 창원도서관 지원 협력계

이광수(전 창원시립도서관장)과 인터뷰, 1998. 6. 11. 15:00-16:40, 창원시청 민방위재난과장실.

이ㅇㅇ (아동문학가, 46세)과 인터뷰, 1999. 7. 12. 17:00 - 18:15, 창원YWCA 사무실

이ㅇㅇ (용지마을도서관 사서, 32세)과 인터뷰, 1999. 7. 12. 15:30 - 16:20, 용지마을도서관

전ㅇㅇ (초등학교 교사, 41세)과 인터뷰, 1999. 6. 29. 15:20-17:00, 소담초등학교 6학년 3반 교실.

정ㅇㅇ (주부, 37세)과 인터뷰, 1999. 7. 7. 14:00 - 14:50, 팔룡마을도서관

한ㅇㅇ (주부, 32세)과 인터뷰, 1999. 7. 8. 10:30 - 11:20, 용지마을도서관

홍ㅇㅇ (주부, 49세)과 인터뷰, 1999. 7. 13. 17:00 - 18:15, 현대아파트 113동 1106호

안ㅇㅇ (창원시립도서관 사서계장), 1999. 7. 6. 11:30 - 12:00, 창원시립도서관 편집실